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for Youth in Asia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 **Date** : 2017. 5. 18.(Thu) 09:00~12:00

○ **Venue** : Sheraton Seoul Palace Gangnam Hotel (Dynasty B)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Career Development

Contents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1. Korean cases on career education ····· 1

Yeo-Bok Yun (Oryu Middle School) / 3

Jung-Geun Park (National Career & Admission Counceling Teachers` association, NCCTA) / 8

Hyun-Ju Jung (GokJeong High School) / 13

Eun-Sook Kong(JungChun Middle School) / 20

Eun-Suk Lee(GongRung Elementary School) / 25

Sun-Sook Park(Mapo Career Work Experience Support Center) / 30

Moon-Hwa Hong(Dongdaemun Career Work Experience Support Center) / 38

Jung-Hwa Seo(Nowon Career Work Experience Support Center) / 43

Ju-Hyun Lee(Yangcheon-Gu Office) / 48

In-Su Kwon(Gangdong Career Work Experience Center) / 52

Choong-Han Lee(Seoul Youth Factory for Alternative Culture) / 57

2. Japanese cases on career education ····· 61

Shimizu Takahiko(Arakawaku Daisan Middle School) / 63

Mikami Masaki(Publich High School in Aomori Prefecture) / 69

Kamita Kiyo(Hokkaido Shihoro Senior High School) / 73

Okabe Atsushi(Sapporo Otani University) / 78

Akimoto Shinji(Reitaku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 83

Wakae Maki(Careerlink Inc.) / 86

Yajima Ryutaro(Chikuseisi Municipal Elementary School) / 91

Kyan Hiroe(GoodJob Okinawa Project, NPO) / 96

Hirano Satomi(Hankyu Hanshin Holdings, Inc.) / 101

Ishii Akiko(Minato Shirokane Elementary School) / 105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n cases on career education

1. Korean cases on career education

Yeo-Bok Yun (Oryu Middle School)
Jung-Geun Park(National Career & Admission Counceling Teachers` association(NCCTA))
Hyun-Ju Jung (GokJeong High School)
Eun-Sook Kong(JungChun Middle School)
Eun-Suk Lee(GongRung Elementary School)
Sun-Sook Park(Mapo Career Work Experience Support Center)
Moon-Hwa Hong(Dongdaemun Career Work Experience Support Center)
Jung-Hwa Seo(Nowon Career Work Experience Support Center)
Ju-Hyun Lee(Yangcheon-Gu Office)
In-Su Kwon(Gangdong Career Work Experience Center)
Choong-Han Lee(Seoul Youth Factory for Alternative Culture)

한국의 진로교육 정책사례와 진단

윤 여 복(오류중학교)
Yeo-Bok Yun (Oryu Middle School)

1. 진로교육 정책 사례

교육부는 2011년을 진로교육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는 등 본격적인 진로교육을 시작했다. 그 이전의 진로교육은 특목고 진학, 명문대 진학에 맞추어진 진학지도가 진로교육의 전부처럼 여겨졌다. 진로교육 정책은 2009 교육과정 개정을 시초로 진로교육법 제정까지 이루어져 있으나, 지금도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은 지속적인 개선과 내실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ㅇ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강화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활동·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기초를 마련했는데, '진로와 직업' 선택과목을 신설하였고, 창의적 체험활동(1~3학년 306시간, 4개 영역)을 신설하여 진로활동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1개교에서 직업체험을 시범운영하였고, 진로캠프, 진로동아리, 진로직업박람회 등의 체험 중심의 진로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직업체험의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체험처를 함께 발굴하면서 자치구별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해 나갔다.

사례1) 직업체험을 시범운영할 때, 일터를 발굴하기가 매우 어려워 시범학교 교사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일터는 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이것이 교육청이 지역사회, 자치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장기적으로 일터 발굴과 관리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자치구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직업체험이 70-80년대의 직업훈련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초창기 4개의 자치구와 일대일 매칭으로 구축한 진로직업체험센터는 2016년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되었다.

ㅇ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 강화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교과와 교과간의 융합, 교과와 창체의 융합 등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배움의 원천을 교과로부터 삶으로 확장하는 자유학기제 등을 도입함에 따라 꿈과 끼를 키워주는 자기주도적 진로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중1진로탐색집중학년제」, 「서울형자유학기제」를 통해 교과통합 진로교육, 다양한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강화해왔고,「진로교육법」 제정('15.6.22)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교급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6년 중1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후 중2혁신자유학년제, 중3맞춤형자유학년제로 자유학기제를 확대해 가고 있다.

사례2)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도입했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에 해당하는 시기로, 자신의 삶과 진로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탐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두 정책을 결합하여 1년 과정의 서울형자유학기제를 탄생시켰다.

서울형자유학기제 초창기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여론이었다. 경쟁 중심의 교육을 멈추고 삶과 연계된 의미있는 학습을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우리의 교육을 전환하자는 설득과 함께 연구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학교생활 적응도, 언어·논리수학 등의 다중지능이 미운영교 학생들보다 향상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그간의 어떤 교육정책보다도 공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임을 홍보했다.

2. 진로교육을 운영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 또는 개선점

ㅇ 진로교사 배치 및 역할

-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 전면 배치를 통해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학교의 규모와 상관없이 배치된 한 명의 진로교사가 모든 학생의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 진로교사가 배치되고 일부 학교에서는 일반교사와 진로교사간의 역할에 대한 조정과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로교육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따르기도 한다.

ㅇ 직업체험의 내실화

- 직업체험은 1일 6시간으로 시작을 했으나,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지역 기반의 부족으로 교육부에서 1일 4시간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일회성의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직업체험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韓国における進路教育の政策事例と診断

ユン・ヨボック(オリュ中学)

1. 進路教育の政策事例

教育部は2011年を進路教育の元年と宣言し、中・高等学校に進路を担当する教師を配置するなど、本格的な進路教育を開始した。それ以前の進路教育は、特別目的高校への進学、　名門大学への進学を目指す進学指導が進路教育の全てのように思われた。進路教育政策は、「2009教育課程改正」を皮切りに進路教育法も制定されるに至っているが、今も教育現場における進路教育は持続的な改善と充実化という課題を抱えている。

○ 体験中心の進路教育の強化

－ 2009改正教育課程を通じて活動・体験中心の進路教育を強化しようと、運営の基礎を整えるための取組みとして選択科目の「進路と職業」を設けており、また「クリエイティブな体験活動」(1~3年は306時間、4つの領域)を新設して進路活動時間を確保するようにした。

－ ソウル市教育庁は2011年、1校で職業体験のテスト運営を実施し、進路キャンプ、進路サークル、　進路職業博覧会など、体験中心の進路活動を実施しており、職業体験の拡充に向け市民団体や地域社会における体験の場をともに発掘し、自治区ごとに進路職業体験センターを設置してきた。

事例1) 職業体験のテスト運営に当たり、　職場を発掘することが非常に難しく、モデル学校の教師の反発が強く、職場については当該地域社会を基盤とする市民団体の協力を受けた。これが教育庁が地域社会や自治区と積極的に協力する契機となった。中長期的な職場の発掘と管理を安定的に行うために進路職業体験センターを設置するというアイディアを出したが、自治区を説得することは簡単ではなかった。区長らは「職業体験と聞くと70~80年代の職業訓練を想起させる」とし、住民の反発を懸念していた。ソウル市教育庁が、当初4つの自治区と一対一のマッチングを行って設けた「進路職業体験センター」は2016年25の全自治区に設置された。

○ 力量中心の進路教育の強化

- 2015改正教育課程では、生徒たちの将来のための力量の育成を目指し、教科間の融合、　教科とクリエイティブな体験活動の融合等、教室における授業を改善し、学びの基本を、教科から人生へと拡大する自由学期制等を導入して夢と才能を発掘する自己主導的進路教育の強化にも力を入れている。

－ ソウル市教育庁は　2013年「中学1年の進路探索集中学年制」、「ソウル型自由学期制」を通じて教科統合型進路教育や多様な体験中心の進路教育を強化してきた上、「進路教育法」の制定('15.6.22)と、全小・中・高等学校の学校級で進路教育集

中学年・学期制度が運営されるための根拠が示されたことによって2016年「中学1年自由学期制度」の全面的な施行後、「中学2 年 革新自由学年制度」、「中学3年 オーダーメード型自由学年制度」を実施し自由学期制度の拡充に取り組んでいる。

事例2)ソウル市教育庁は、試験による生徒たちの精神的負担を和らげ、自らの進路を探索できる十分な機会を与えるため 「中学1年 進路探索集中学年制度」を導入した。中学1年生を対象としたのは、初等教育から中等教育へ移行する過渡期に当たる時期であり、自分の人生と進路について真剣に考え、始めるべき時期であるためだ。政府が進める自由学期制が導入され、ソウル市教育庁は両政策を組み合わせて1年過程の「ソウル型自由学期制度」を設けた。

ソウル型自由学期制度が始まった際、最も苦労したのは、学力低下が懸念されるという世論だった。競争中心の教育をやめ、人生を設計する意味のある学習を通じて将来のための核心力量を開発できる教育へと、韓国の教育を変えようという説得とともに、研究学校に通う生徒の進路成熟度、学校生活適応度、 言語・論理数学などの多重知能がプログラムを運営していない学校の生徒より向上しているという研究結果を根拠として、これまでのどんな教育政策よりも公共教育の革新を成し遂げるに適した政策であることを広報した。

2. 進路教育を運営する中で見つかった問題または改善点

ㅇ 進路教師の配置と役割

- 中・高等学校に進路教師を全面配置することで進路教育を充実化に取り組んできたものの、学校の規模を考慮せず教師一人のみを配置ているが、その教師が生徒一人ひとりに合わせた進路教育を実現するのはやや無理がある。
- 一部の学校では、一般教師と進路教師との役割分担や協力関係の形成がなされず、進路教育の推進が困難なケースもあるという。

ㅇ 職業体験の充実化

- 職業体験の実施時間は、当初1日6時間だったが、自由学期制度の全面的な施行による地域で対応し切れなくなった情況を受け、1日4時間に下方修正した。一過性の名ばかりのプログラムになってしまうケースが多数出ている。職業体験の効果を向上できる改善策が求められる。

한국 진로교육의 개선점 및 사례

박정근(수원 화홍고,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Jung-Geun Park (National Career & Admission Councelling Teachers' association, NCCTA)

1. 현행 우리나라 진로교육(또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

가. 진로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나.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양에서 질로
다. 학교와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
라. 진로교육 정책의 일관성
마.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등
바. 단위학교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
- 진로교사의 역할: 콘트롤 타워
- 학급담임, 교과교사와 연계한 상담, 진로 수업
- 관리자의 인식 제고
- 학부모 인식 제고

사. 진로와 직업(선택교과)/진로활동(창체) 수업(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 교육과정: 분석 후 재구성
- 수업: 디자인 하기(질문, 하브루타, 프로젝트, 거꾸로 교실 등)
- 평가: 과정 중심, 피이드백 강조
- 기록: 평소에 관찰한 것

2. 진로교육 사례 소개(과천 중앙고, 2017년 계획)

1) <창업과 기업가정신> 자율동아리 운영을 통한 기업가정신 교육의 내실화

◦ 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
◦ 대상 : 1학년 학생 중 희망 학생 중심으로 20명 내외로 조직, 운영

◦ 활동 장소 : 교내 및 체험처(온·오프라인으로 활동), 분당 네이버 사옥, 강남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등

◦ 운영 방법

-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PP)의 창업 관련 콘텐츠와 전문가 온라인 멘토링, 동아리활동 미션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 교육부가 후원하고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최하며 OEC 재단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네이버와 함께 하는 기업가정신 스쿨 프로그램으로, 1학기 6회의 정규프로그램 교육, 3회의 문제해결 캠프, 1회의 결과 공유발표회를 진행한다.

프로그램 개요 – 정기교육

정기 프로그램(2시간X6차시, 서울·경기 20개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

- 2학기 프로그램으로는 과천시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실제 창업에 성공한 창업가들을 초빙하여 사례를 경청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 방과후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자율동아리 활동의 수행 결과는 12월 교내 동아리발표회에서 전교생 대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천시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컨설팅 및 멘토링을 진행한다.

2) 교과연계 진로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지향

◦ 학년 융합 교육과정 재구성

▶ 목적

- 교과의 독립적 성격을 넘어서 교과 간 영역의 범위를 통합하여 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교과 지식에만 치우친 교육과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획일적인 교수학습의 틀에 변화를 시도한다.

▶ 방침

- 교과 담당교사의 충분한 협의회를 거쳐 일정을 진행한다.
- 사후평가회를 통해 수정, 보완점을 찾고 이를 반드시 다음 학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韓国進路教育の見直しとその事例

パク・ジョングン(水源ファホン高校、全国進路進学相談協議会会長)

1. 現在韓国の進路教育(または進路教育プログラム)の見直し

イ. 進路教育の重要性に対する意識向上

ロ. 学校の進路教育の充実: 量から質へ

ハ. 学校と地域のネットワーク作り

ニ. 進路教育政策の一貫性

ホ. 学歴による賃金格差の解消など

ヘ. 単位学校の進路教育のシステム構築

- 進路教員の役割：コントロールタワー
- クラスの担任、教科の教師と連携した相談、進路授業
- 管理者の意識向上
- 親の意識向上

ト. 進路と職業(選択教科)/進路活動(創意敵体験活動)授業(教育課程-授業-評価-記録の一元化)

- 教育課程: 分析してから再構成
- 授業: デザインする(質問、chavruta、プロジェクト、逆進行授業など)
- 評価: 過程を中心、フィードバックを強調
- 記録: 普段観察していたこと

2. 進路教育事例の紹介(果川中央高校、2017年計画)

1) <起業と企業家精神>自律サークル運営を通じて企業家精神の教育の充実

◦ 期間：2017年 3月 ~ 2017年 12月

◦ 対象：1年生の中、希望者を中心として20人程度で組織、運営

◦ 活動場所 ： 校内及び体験先(オン·オフラインで活動)、盆唐ネイバー社屋、江南ネイバーD2スタートアップファクトリー

◦ 運営方法

- 青少年企業家プログラム(YEPP)の起業関連コンテンツや専門家のオンラインメンタリング、クラブ活動の課題を通じて自己主導的に進路設計の能力を身につけるようにする。
- 教育部が後援し、若者企業家精神財団が主催、OEC財団が主管する「ネイバーと共にする企業家精神スクールプログラムで、１学期6回の正規プログラムの教育、3回の問題解決

のキャンプ、1回の結果共有発表会を進行する。

＜プログラムの概要ー定期教育＞

- 2学期プログラムには果川市起業支援センターと連携して実際に起業に成功した起業家を招いて事例を聞く場を設ける。
- 放課後の教育活動を中心に自発的かつ持続的に運営できるようにする。
- 自律サークルの活動の進み具合いは12月校内の発表会で全生徒向けに発表する。
- 果川市起業支援センターと連携してコンサルティングやメンタリングを進める。

2) 教科連携の進路教育活性化を通じた教育課程ー授業ー評価（記録）の一元化を目指す

◦学年融合の教育課程へ再構成

▶ 目的

- 教科の独立性を越え、教科間の領域の範囲を統合し融合敵な教育過程を進める。
- 教科の知識の習得に偏っている教育課程のバランスをとりつつ、画一的な教授法から変化を図る。

▶ 方針

- 教科の担当教員との十分な協議会を経て日程を推進する。
- 事後評価会を通じて見直し、補足するところを探り必ず次学期に取り入れるようにする。

특성화고등학교 진로교육 사례

정현주(곡정고등학교)
Hyun-Ju Jung (GokJeong High School)

1. 진로교육 사례 소개

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수원농생고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1) 졸업생 및 현장 전문가들의 진로 특강 : 개인 진로 준비 정보와 취업 노하우, 그 직업영역의 특징, 삶의 태도 공유
2) 전문직업인의 특강 : 전공 분야 심화 특강과 관련 진로 안내
3) 채용설명회와 채용박람회 : 인사담당자의 업체 및 직무설명회 및 채용면접과 면담, 정보공유
4) 현장견학 : 공장, 연구소, 취업업체, 박람회 등의 현장답사(학부모동반, 견학 시 모의면접 프로그램, 현장 전문가 특강 병행)
5) 현장직업체험 : 방학기간을 활용한 현장직업체험
6) 진로캠프 : 학교 적응을 위한 신입생의 진로캠프(수원시연계), 취업준비를 위한 징검다리취업캠프

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재능기부와 취업의 연계

1) 2014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창조농업교실 재능기부로 찾아오는 전문가 특강 실시
2) 2015~2016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재단 시설을 이용하여 농업기계검정의 이해, 대형트랙터 주행체험, 햄버거 패티 유전자 분석 실험 등 실시

3) 신문기사 일부 내용 발췌

	…..'창조농업 교실'은 재단의 박사급 인력과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능기부를 통해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 작년 수원농ㅅㅇ고에서 처음 제안해 시범운영되다가 교육현장의 반응이 좋아 계속 추진요청이 있어 금년에 확대운영되었다.. ..6개과정 22개 주제로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체험교육을 강화.. 앞으로 지방농과계열 학교와의 재능기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계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농업의 미래를 밝혀 나가는데 힘쓰겠다.. [농민신문. 2015.4.21.]

4) 취업과의 연계 : 2013(1명), 2014(1명), 2015(2명)

다. 진로캠프와 취업캠프

1) 진로캠프

-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21만원 중 14만원 지원, 개인 7만원부담),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총괄 운영하여 수원 관내 특성화고 학생 대상 신입생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
-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기초직업역량과 취업정보를 공유하는 자리
- 자기이해, 팀 빌딩, 진로 목표 설계를 통한 학교 적응

2) 징검다리 취업캠프

- 취업희망자의 자신감 증진 및 스스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내 방과 후 프로그램
- 2학년 2학기에 16시간 구성, 월 1회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에서 활동, 15~20명 구성
- 내용 : 직업심리검사와 해석, 직무분석, 자기소개서 쓰기와 코칭, 이미지메이킹, 직장 내 대화법과 직장예절, 1분 자기소개 준비, 면접스피치와 모의면접, 워크넷 기업탐색과 서류지원 실습, 근로계약서작성과 근로기준법
- 운영 : 진로교사, 취업지원관, 외부강사
- 방법 : 교재제작 배부, 실습중심프로그램, 사후 만족도조사
- 효과 : 학생과 교사 내부에서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개인진로 맞춤 코칭이 가능, 학생 주도 취업 동기 부여 가능, 취업률향상(11년 17.8% → 15년 48%)

2. 현행 진로교육(또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개인 맞춤 진로교육의 질적 접근요구와 현실적 학교 자원의 한계

- 사회 문화적 수준의 향상과 네트워크 수준 향상, 정보의 공유, 진로에 대한 사회적 현상 등의 문제 공유로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 관리자와 교육청과 교육부의 진로교육의 요구 수준은 “개인맞춤 진로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지향
- 학교 규모와 학교의 지리적 위치, 물질적 자원의 투자 규모, 교사 및 학부모 구성원의 규모와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수준, 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 교육과정 선택 시수 등에 따라 학교마다 진로교육의 모습은 다름. 대체로 학교는 (진로)교사의 소명의식과 책임에 의존하는 편임
- 진로 체험 인솔 : 교사 수업으로 출장 가능한 교사를 중심으로 배치, 학생과의 라포 형성과 현장 피드백의 적절성 검토, 현장 체험 인솔로 교사가 현장을 이해하고 교육과정에 그 내용을 반영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공과 교사가 인솔
-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진로 업무를 함께 할 상시 지원 인력 필요** : 도시형, 대규모 학교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결과의 평가 반영, 진로상담에는 많은 업무 조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인력이 필요하다. **(특성화고에서는 취업지원관, 일반고에서는 진로코디네이터)**
- **학교 급에 맞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으로 형식적이거나 맛보기 체험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기본에 충실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취업 후 부적응으로 돌아오는 학생들. 오랜 진로 준비에 도 불구하고 적응시기에 인내심과 책임감이 부족한 현실 개선을 위함. 그리고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수준이 다양하지는 않음(초, 중, 고, 특성화고)
- 개인의 취업과 진학 진로 설계와 준비를 위한 **도구적 진로 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음 → 역량중심 진로교육 인식과 훈련, 삶이 가치와 태도를 점검하는 성찰적 진로교육(성장)
- 진로교사의 업무에 대한 순수성 보장

2) 특성화고 진로교육 ; 가정과 사회보다 앞선 가치, 능력중심사회 실현의 선구자적 고통과 책임

- 가정과 사회에서 바라보는 진로, 정책적 진로교육, 같은 것을 원하지만 실천적 측면에서 온도차이가 느껴진다. 서로 다른 눈높이(예: 일자리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보장 및 법적 근로시간 보장을 협의하고 (영세)기업의 관리자 대상 성 인식과 노동인권의 가치 등 노동교육과 고용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교사
- 기업에서 학교에서와 같은 역할과 대우를 기대하고 서비스 받기를 기대하는 학부모와 학생과 만들어진 좋은 인재를 바라는 업체 사이에서 중간지대 역할 수행
- 고졸 취업, 능력중심 사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함, 기업대상 학부모대상 인식개선 노력을 교사가 수행하나 사회 변화 속도가 너무 느려 인식변화체감이 잘 되지 않음. 산업현장과 가정에서 대학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 후진학을 선택하거나 진학을 위해 취업을 포기함

3) 중학교에서의 상급학교 진로 안내와 의사결정이 중요

- 특성화고의 전공 교육과정 및 진로 개요를 고려하지 못한 채 진학하거나 학부모의 의사에 따른 막연한 진로 결정(자기 삶에 주도성과 책임성이 사라짐)으로 고등학교 진학 후 학교 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여전함

特性化高校における進路教育の事例

ヂョン・ヒョンヂュ（コクヂョン高校）

1. 進路教育事例の紹介

あ。特性化高校における進路教育（水原農生命科学高校の運営事例を中心に）

1）卒業生及び現場専門家による進路関連特別講義：個人の進路準備情報や就職のノウハウ、その職業領域の特徴、人生態度を共有

2）専門職従事者の特別講義：専攻分野の特別講義や関連進路の案内

3）採用説明会やジョブフェア：人事担当者による会社及び職務の説明会、採用面接や相談、情報共有

4）現場見学：工場、研究所、就職希望先、博覧会などの現場見学（保護者同伴、見学時模擬面接プログラム、現場専門家による特別講義並行）

5）現場職業体験：夏・冬休みを活用した現場職業体験

6）進路キャンプ：学校適応のための新入生の進路キャンプ（水原市と連携）、就職準備のための就職キャンプ

い。農業技術実用化財団の才能寄付と就職の連携

1）2014年、農業技術実用化財団の創造農業教室の才能寄付により「訪問する専門家の特別講義」を実施。

2）2015～2016年、「訪問するプログラム」に拡大、財団施設を利用し農業機械検定の理解、大型トラクターの走行体験、ハンバーガーパテの遺伝子分析実験などを実施。

3）新聞記事の一部内容の抜粋

...「創造農業教室」は財団の博士級の人材や弁護士、弁理士、公認会計士、技術価値評価士などの専門家が参加し、才能寄付の形で無償で教育を実施する社会貢献活動だ。
...昨年、水原農生命科学高校で初めて提案、運営したが、教育現場の反応が良く、継続的な推進要請があり、今年拡大運営することを決めた。
...6個の課程、22個のテーマの講義中心から抜け出し、現場体験教育を強化...今後地域の農業関連学校へ才能寄付を拡大していく計画で...農業系列の生徒たちに夢や希望を与え、農業の明るい将来に向け力を注いでいく...
[農業新聞. 2015.4.21.]

4）就職との連携：2013（1人）、2014（1人）、2015（2人）

う。進路キャンプと就職キャンプ

1）進路キャンプ

-水原市が予算を支援（21万ウォンのうち14万ウォンを支援、個人が7万ウォン負担）、水原商工会議所で総括運営、水原市の特性化高校生を対象にした新入生進

路キャンプを実施

-就職を準備できるような基礎的な職業能力や就職関連情報を共有する場

-自己理解、チームビルディング、進路目標設計による学校適応

2）就職キャンプ

-就職希望者の自信を高め、自ら就職を準備できるようにサポートする放課後プログラム

-2年生2学期に16時間編成、月1回土・日学校で活動、15～20人からなる

-内容：職業心理検査や解析、職務分析、自己PRの書き方指導、イメージメーキング、職場内コミュニケーション方法やエチケット、1分自己PRの準備、面接スピーチや模擬面接、ワークネットにおける企業探索や書類応募の実習、労働契約書の作成や労働基準法

-運営：進路担当教師、就職コンサルタント、外部講師

-方法：教材製作・配布、実習中心プログラム、満足度調査

-効果：生徒と教師が必要性や重要性認識、個人に合わせた進路指導が可能、生徒が主導する形で就職のモチベーション作り可能、就職率向上（11年17.8% → 15年48%)

2. 現行の進路教育（または進路教育プログラム）の問題点及び改善点

1）個人に合わせた進路教育の質的なアプローチへの要求と現実的な学校のリソースの限界

-社会・文化的な水準の向上やネットワーク水準の向上、情報共有、進路に対する社会の問題点などの共有により、生徒と保護者の進路教育への要求、管理者や教育庁、教育部の進路教育の水準は「個人に合わせた進路教育プログラムの提供」を目指す。

-学校の規模や学校の地理的位置、物質的な支援の投資規模、教師及び保護者の規模や進路教育に対する認識水準、教育に対するポリシーや価値、教育課程における進路教育時間により、学校ごとに進路教育の在り方は異なる。大体、学校は（進路）担当教師の召命意識や責任に頼っている。

-進路体験引率：出張可能な教師を中心に配置、生徒とのラポート形成や現場でのフィードバックの適切さ検討、現場体験引率により教師が現場を理解し、教育課程にその内容を反映する機会として活用できるように専門教師が引率。

-**満足度の高いプログラムの運営のため、常に進路業務に携わる人材が必要**：都市型、大規模学校の進路体験プログラムの企画と運営、結果の評価反映、進路相談には多くの業務サポートが必要で、このような業務を持続的に手伝う人材が必要だ。（

特性化高校では就職コンサルタント、一般高校では進路コーディネーター）

-各学校に適した現場体験プログラムの開発や支援で形式的、味見体験から脱し、基本に充実した現場体験ができる機会提供：就職後、適応できず戻ってくる生徒たち。長い進路準備にもかかわらず、適応期間に忍耐や責任感が足りない現実の改善を目指す。また、現場体験プログラムのレベルの多様性が欠く。（小・中・高、特性化高校）

-個人の就職や進学・進路設計や準備のための道具的な進路教育が中心となっている→

能力中心の心理教育の認識や訓練、人生の価値や態度を点検する省察的な進路教育（成長）

-進路教師の業務に対する純粋性保障

2）特性化高校の進路教育：家庭と社会に先立つ価値、能力中心社会の実現における先駆け役としての苦痛や責任

-家庭や社会からみる進路、政策的な進路教育、同じことを求めるが実践的な面において温度差が感じられる。互いに異なる目線（例：仕事に対して互いに異なる観点）

-生徒たちの現場実習や就職のため、企業と最低賃金保障及び法的労働時間保障を協議し、（零細）企業の管理者を対象とした性認識や労働人権の価値など労働教育や雇用現場での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教師。

-企業で学校と同様な役割や処遇を期待し、同様なサービスを求める保護者・生徒とできあがった人材を求める企業の間で中間地帯の役割を果たす。

-高卒就職、能力中心社会の雰囲気作りのためさらなる努力が求められる。教師が企業や保護者の認識改善に取り組んでいるものの、社会の変化のスピードが遅く、認識が変化したと実感できない。産業現場や家庭で大学学力が必要だと考えている人に会う場合、後進学を選択したり、進学のため就職をあきらめる。

3）中学校における上級学校への進路案内や意思決定が重要

-特性化高校の専攻教育課程及び進路概要を考慮せず進学したり、保護者の意思により漠然とした進路決定（自分の人生への主導性や責任感がなくなる）を行い、高校進学後、学校に適応できない生徒が依然として存在する。

자유학기제에서의 진로교육 운영사례

공은숙(정천중학교)
Eun-Sook Kong(JungChun Middle School)

1. 자유학기 진로교육 운영 사례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경험 중심의 체험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키우고 끼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2016년부터 전국의 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의 세 학기 중, 학교의 장이 해당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 학기를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학교 수업방식 개선과 함께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로탐색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진로인식과 탐색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에서 진로교육은 어떻게 실시될 수 있는가? 자유학기활동에서의 진로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유학기활동에서 진로 탐색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 선택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 할 수 있다. 본교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와 인성을 혼합한 진로탐색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 지필고사 기간을 활용한 소규모 현장 진로직업 체험활동이다. 학교가 속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삶의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직업에 대한 비현실적 생각을 바꾸어 주어 현실적 직업관을 갖게 됨으로써 직업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체험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보다는 현장 중심의 체험활동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과 같은 소규모 업체에서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직업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활동임을 이해하고, 직업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을 알도록 하게 한다. 1차와 2차 지필고사 기간을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동안에 두 차례의 체험활동을 실시하는데, 1차는 학부모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소규모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학생들이 희망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천중학교 체험활동 예시>

▣ 사전활동

- 학부모지원단 사전 연수(교육) : 2017. 4.12(수) 14:00-16:00
- 학생 사전 오리엔테이션 : 4.25(화) 1교시

▣ 운영기간

- 4월 25일(화) : 체험 일터 확인, 체험관련 직업분야 사전 조사, 체험 계획하기
- 4월 26일(수) : 22개 직업체험 터전으로 진로직업 체험활동

▣ 방침

- 학부모지원단을 중심으로 발굴된 일터를 중심으로 학생의 희망을 받아 체험일터를 매칭한다.
- 일터로부터 교육기부확인서를 받아 운영하며, 일터 멘토에게 직업체험의 취지와 방법을 알려준다.
- 학생 사전 지도를 통해 체험활동의 목적, 방법, 이동 중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및 공중도덕 등을 철저히 지도한다.
- 체험과정에서 알게 된 결과 소감을 정리하여 진로체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며 우수작에 대해 시상한다.

▣ 체험분야별 체험 일터 참가 현황

체험방식	체험분야(장소)						
	인원						
소규모체험	의료	서비스	연구원	학과체험	보드게임	미술체험	은행
(교육기부)	18	13	6	14	6	7	3
그룹 체험	시제품 제작	법률	상담	패션디자이너	박물관	공공기관	기후변화 체험관
(꿈길활용)	21	16	13	24	60	39	22

2. 진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다 보면 학교와 교사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 특히 지역사회 인프라를 발굴, 구축하는 일이나 자유학기 활동의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협력이 요청된다. 이 때 학부모들의 재능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교가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동적 역할과 단순히 교육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학부모회를 능동적 조직으로 변화시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체험장 발굴에 적극 나서 줄 것과 학부모들의 기능이나 지적·경험적 능력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학부모가 지역사회의 일원이기에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바른 민주시민의 육성이라면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진정한 학력이란 스스로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학습능력이며, 진정한 학력이 있어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사회참여교육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적 지식과 인성이 있어야 완성되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다.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교실 밖 수업이 가능하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곧 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인지적 영역의 교육을 담당하고, 지역사회는 경험적 지식을 쌓게 해줌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보완적 활동을 담당해야 한다.

각 지역에 진로체험센터가 건립되어 있긴 하지만 진로체험 터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진로체험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중심의 실질적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自由学期制における進路教育の運営事例

ゴン・ウンスク（ヂョンチョン中学校）

1. 自由学期における進路教育の運営事例

自由学期制とは、1学期の間、生徒たちがテストの負担から解放され、経験中心の体験活動により、自分の夢を育むとともに才能に気づくことのできるように、教育課程を柔軟に運営する制度を意味する。2016年から全国の中学校で1年生の1学期、1年生の2学期、2年生の1学期の3学期のうち、学校長が当該学校の教員や保護者の意見をもとに、1学期を選択し実施している。

自由学期制の定着のためには、学校の授業方法の改善とともにに生徒に多様な進路探求活動の機会を提供することが重要だ。進路探求活動により生徒たちの進路への関心や意欲を向上させる効果があるものとみられる。では、自由学期制における進路教育はどのように実施できるのか。自由学期における進路教育は大きく二つに分けられる。

第一、自由学期の間、進路探求活動を実施できる。選択プログラムを運営したり、体験活動を中心に運営することもできる。本校では、進路・進学相談を担当する教師が進路や人格形成を組み合わせた進路探求プログラムを運営している。

第二、テスト期間を活用して小規模職場体験活動を実施している。学校が所在する地域の小規模事業所を中心に体験活動を実施しているが、これは生徒たちの職業に対する正しい理解を深めるとともに、職業に対する非現実的な考え方を現実的なものに変えることで職業の大切さを認識してもらうことに狙いがある。そのためには、職業体験専門施設よりは現場中心の体験活動が必要であり、中小企業のような小規模事業所で体験してみるのも重要だ。また、職業は社会生活の基礎となる活動であることや、職業の目的が自分の幸せを追求し、社会発展に貢献する行為であることを理解してもらう。自由学期制の間、中間・期末テスト期間を活用し、2回の体験活動を実施しているが、中間テストの時は、保護者支援団のサポートを受け、小規模事業所や中小企業、公共機関などで生徒たちの希望する体験ができるように努力している。

＜ヂョンチョン中学校の体験活動の例示＞

▣　事前活動

- 保護者支援団の事前研修（教育）：2017年4月12日（水）14:00～16:00
- 生徒の事前オリエンテーション：4月25日（火）1時限

▣　運営期間

- 4月25日（火）：体験現場確認、体験関連職業分野の事前調査、体験計画
- 4月26日（水）：22個所の職業体験の場で、進路・職業体験活動

▣　方針

- 保護者支援団を中心に発掘した職場と生徒の希望をもとに体験する職場をマッチする。
- 対象職場から教育寄付確認書を受け取り運営し、職場のメンターに職場体験の主旨や方法を熟知させる。

- 生徒に事前指導を行い、体験活動の目的、方法、移動中守るべき安全上注意事項及びエチケットなどを徹底的に熟知させる。
- 生徒たちに体験の感想をまとめた職業体験レポートを提出してもらい、優秀作は表彰する。

▣ 体験分野における体験職場参加の現況

体験方式	体験分野（場所）						
	人数						
小規模体験(教育寄付)	医療	サービス	研究員	学科体験	ボードゲーム	美術体験	銀行
	18	13	6	14	6	7	3
グループ体験(進路体験支援ネットワーク活用)	試作品製作	法律	相談	ファッションデザイナー	博物館	公共機関	機構変動体験館
	21	16	13	24	60	39	22

2. 進路教育における問題点及び改善点

自由学期制の運営上、学校や教師たけでは力不足のことが多くある。特に、地域社会のインフラ発掘、構築や自由学期活動における選択プログラム、部活などの運営には、地域社会の協力が欠かせない。その際、保護者が自分の才能や能力を積極的に活用する必要がある。全ての学校が保護者会を組織・運営しているものの、ほとんどは受動的な役割を果たしたり、教育活動を間接的に支援する活動に止まっている。今後は、保護者会を能動的組織へと変化させ、教育活動に積極的に参加できるように後押し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また、生徒たちの体験の場の発掘に積極的に取り組むとともに、保護者の知的・経験上の能力を生徒たちと分かち合うよう促す必要がある。すると、保護者が地域社会の一員であることから、地域社会が学校の教育活動に関心を持ち、参加するようになるだろう。

教育の最終的な目的が正しい民主市民の育成だとすれば、地域社会との連携は欠かせない。真の学力とは自ら学習し身につけることのできる学習能力で、真の学力があってこそ、民主市民として成長でき、これは、社会参加型教育活動により得られる経験的な知識や人格があってこそ完成できる。というのは、学校や教師の自律性が高くなることで教室外の授業が可能になり、保護者の積極的な教育活動を基に地域社会が教室になれるためだ。学校は認知的領域の教育を担当し、地域社会は経験的な知識の蓄積を後押しすることで、学校と地域社会が相互補完的な活動を担当すべきだ。

各地域に進路体験センターが存在するものの、進路体験の場をより積極的に発掘し、生徒たちの夢や才能を育むための進路体験をさらに活性化する必要がある。生徒たちの進路探求のための体験中心の実質的な進路教育が行われるべきだ。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이은숙(공릉초등학교)
Eun-Suk Lee(GongRung Elementary School)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직업세계 이해

가. 운영 목적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체험중심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 마을의 다양한 진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현장 중심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 실시

나. 운영 개요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계획 수립	1) 일시 : 6. 22(금) 1~4교시 2) 대상 : 5학년 전체(3반), 6학년 1반(총 67명) 3) 장소 : 학교 주변 관공서 및 일터 탐방 4) 직업체험 장소 : 12개 일터(직업흥미 유형별 1인당 2곳씩 방문)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운영 준비	1) 계획 수립 : 초등 직업체험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2) 학교 진로교육협의회 구성(11명) :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 3) 학부모 진로코치단 모집(5명) : 가정통신문 배부 4) 지역사회교사기획단 협의회 구성 : 교사(2개 학교), 상상이룸센터 5) 학부모 진로아카데미교육(3시간씩 2회) : 상상이룸센터 6) 동네 일터 발굴(12개 장소) : 학부모 진로코치단 7) 활동 준비물 구입 : 스탬프(6종 12개), 체험북(스탬프 찍는 수첩) 8) 사전 협의회 실시 : 세부일정 협의(학부모, 교사), 안전교육 계획 9) 교과통합 진로교육 실시 : 대상 학생 10) 동네 일터 안전 점검 : 학부모 진로코치단(안전점검표 체크) 11) 학생 안전사고 예방 사전 지도 : 학급별 안전교육 실시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실시

1)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일정

일시	활동 내용	활동 장소
1교시	▸ 직업 체험활동 안내 및 안전지도	각 교실
2~4교시	▸ 인솔교사와의 만남 ▸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활동 실시	2층 강당, 동네 일터 탐방
5교시	▸ 활동 결과 발표회	각 교실
6.28(화) 15:00~	▸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활동 평가회 실시	5-1 교실

2) 직업체험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일터 탐방 경로

유형	일터	이동	유형	일터
R(실재형)	피터팬치과	→	A	상상놀이터
A(예술형)	상상놀이터	→	C	행복발전소
C(관습형)	행복발전소	→	S	공릉초 병설유치원
I(탐구형)	경희한의원	↔	S	공릉지구대
R(실재형)	911무인경비	↔	A	에브리뮤직
A(예술형)	드롭탑	↔	C	농협
S(사회형)	공릉1동 주민센터	↔	R	연세사랑병원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평가회

◗ 활동 결과 정리
1) 시간 : 6월 22일(수), 5,6교시
2) 활동 : 만족도 설문조사, 소감문 작성, 진로신문 만들기
3) 평가 협의회 : 5, 6학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

다. 운영 효과

- 직업흥미검사 결과에 따른 직업 유형별 체험활동 진행을 위해 소통하고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에게 맞는 일과 직업을 찾아보는 기회 제공
- 학교 주변의 직업체험 일터를 발굴하여 참여함으로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직업체험 효과 극대화
- 학생들의 직업흥미에 따른 유형별 일터체험 활동 및 직업인 인터뷰를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직업인의 어려움과 보람 경험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가. 문제점

-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 필요 : 교육과정 재구성, 동료 교사의 참여 유도, 학생 안전사고 예방, 학생 직업유형 검사 진행의 어려움(컴퓨터 활용 검사) 등 업무량 증가
- 학부모 진로코치단 발굴의 어려움 :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낮은 인식
- 학교 주변 동네 일터 발굴의 어려움 : 지역 일터 운영자의 영업 활동에 손해
- 직업 유형별 다양한 일터 발굴의 어려움 : 지역적 특성상 유형별 일터가 다양하지 않음
- 직업 유형별 학생의 수가 일정하지 않아 직업 유형별 일터 탐방 매치가 어려움
- 직업체험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 직업체험에 따른 실습비 발생
-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의 정착

나. 개선 방향

- 지역사회 진로교육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 진로교육 협의회 조직 및 운영
- 학부모 진로코치단원의 심화연수를 통한 지역사회 진로교육 멘토(명예교사)로 지속적인 활동
- 학교와 학교 주변 일터,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 지역사회 일터 체험 기관인증장(마크, 표지판, 감사장 등) 발급을 통한 일터 참여 활성화(참여일터 인센티브 제공)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연수를 통한 지역사회 일터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地域社会連携プログラム

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

イ・ウンスク(コンヌン小学校)

イ. 運営目的

- 小学生を対象に仕事に対する正しい理解や前向きな価値観を形成させ、地元社会と連携する体験型進路探索の機会を提供
- 町の様々な進路教育インフラを構築し、これを活用した現場中心の進路プログラムを開発。生徒カスタマイズ型進路体験教育を実施

ロ. 運営概要

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計画樹立

1) 日付 : 6. 22(金) 1~4限
2) 対象 : 5年生全体(3クラス), 6年生 1クラス(計67人)
3) 場所 : 学校周辺の公共機関及び仕事場
4) 職業体験場所 : 12の仕事場(職業への興味に合わせ種類別1人当たり2か所)

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運営準備

1) 計画樹立 : 小学生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
2) 学校の進路教育協議会構成(11人) : 教員, 保護者, 地元の専門家
3) 保護者進路コーチ団の募集(5人) : 家庭通信文の配布
4) 地元教師企画団協議会の構成: 教員(2校), 想像イルムセンター
5) 保護者進路アカデミ教育(3時間ずつ 2回) : 想像イルムセンター
6) 町の仕事場発掘(12か所) : 保護者進路コーチ団
7) 活動の持ち物購入 : スタンプ(6種 12個), 体験ブック(スタンプを押す手帳)
8) 事前協議会の実施 : スケジュール協議 (保護者,教員),安全教育計画
9) 教科統合の進路教育を実施 : 対象の学生
10) 町の仕事場の安全点検 : 保護者進路コーチ団(安全点検表チェック)
11) 生徒の安全事故を防ぐ事前の指導 : クラス別安全教育を実施

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実施

1) 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日程

時間	活動内容	活動場所
1限	▸職業体験活動の案内及び安全指導	各クラス
2~4限	▸引率教師との出会い ▸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実施	2回の講堂 仕事場探訪
5限	▸活動結果の発表会	各クラス
6.28(火) 15:00~	▸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の評価会実施	5-1組

2) 職業体験 ‘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 仕事先の探訪経路

種類	仕事場	移動	種類	仕事場
R(実在型)	ピーターパン歯科	→	A	想像遊び場
A(芸術型)	想像遊び場	→	C	幸福発電所
C(慣習型)	幸福発電所	→	S	孔陵小併設幼稚園
I(探求型)	キョンヒ漢方医院	↔	S	孔陵交番
R(実在型)	911無人警備	↔	A	エヴリミュージック
A(芸術型)	ドロップトップ	↔	C	農協
S(社会型)	孔陵1洞住民センター	↔	R	延世サラン病院

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評価会

- 活動の結果を整理

1) 時間 : 6月 22日(水), 5,6限
2) 活動 : 満足度アンケート調査, 感想文作成, 進路新聞づくり
3) 評価協議会 : 5, 6年生教師, 保護者, 地元の専門家

ハ. 運営効果

- 職業興味検査の結果による職業の種類別体験活動を進めるため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し職業探索のチャンスを提供して自分に合う仕事と職業を探す
- 学校の周りの職業体験場を発掘・参加刷ることによって時間やコストを節約して効果を最大にする
- 生徒の仕事への興味に沿った種類別仕事場を体験させ、職業員とのインタビューを通じて職業に対する理解と興味を高める。そこから職業員の困難ややりがいが分かる

地域社会連携プログラム 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の問題点と見直し

イ. 問題点

- 教師の進路教育に対する熱意や献身が必要：教育過程の再構成、仲間教員への参加誘導、生徒の安全事故を予防、生徒の職業類型検査を進めるのが困難（パソコン活用検査）など業務量の増加
- 保護者進路コーチ団発掘の困難 ： 小学生の進路教育の重要性に対する保護者の認識不足
- 学校周りの仕事場の発掘の困難 ： 地元の事業者の営業活動に損害
- 職業の種類別様々な仕事場の発掘が困難 ： 地域の特性上、種類別の仕事場が多様ではない
- 職業の種類別生徒数が変るので種類別仕事場へのマッチングが難しい
- 職業体験活動のための予算の確保が困難：職業体験による実習費が発生
- 一回性のイベントではなく持続的な進路体験プログラムとして定着

ロ. 見直し

- 地元の進路教育機関と連携してプログラム開発に向けた進路教育協議会を組織・運営
- 保護者進路コーチ団の深化研修を通じて地元の進路教育メンター（名誉教師）として持続的に活動
- 学校と学校の周りの仕事場、保護者が共にする教育共同体のネットワークを構築
- 地元の仕事場体験の認証状（マーク、表示板、感謝状など）の発給から仕事場の参加を求める（参加機関へのインセンティブ提供）
- 優秀事例発掘及び広報、研修を通じた地元の仕事場体験プログラムの活性化

지역자원연계 직업체험의 날, 마포진로박람회 사례

박선숙(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Sun-Sook Park(Mapo Career Work Experience Support Center)

Ⅰ 사업 목적

진로와 직업에 대하여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진로선택에 필요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Ⅱ 사업 목표

가. 지역자원중심의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 지역청소년들의 진로고민해결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세대, 구성원이 참여
☞ 늘 대면하고 접촉하고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지역 일터가 참여
☞ 진로교육을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로 이슈화하여 지역자원 총체적 연계의 장

나. 관람에서 체험위주의 진로박람회로 운영방식 변화

구분	기존 박람회	마포진로박람회
참가 대상	불특정 다수	**회차별 부스참가 대상 사전 확정(중학교 1학년)** 사전예약부스)사전매칭(참가인원, 명단확정) 자유체험부스)시간대별 학교 매칭(인원확정)
부스별 운 영	부스별 자유운영	**부스참가자 정보 사전에 공유, 연령/성별에 맞게 부스활동 구성** 사전예약부스)14~15명 대상 수업/체험(40분) 자유체험부스)부스별 자유운영
참가자	체험시간 예측불가 (긴 대기시간)	사전예약부스(40개 중 2개 직업 체험) + 자유체험부스(45분간 30~40개 중 선택체험) (총150분)

다. 통합적 진로교육으로서의 진로박람회

☞ 다양한 지역사람들과 관계 형성 및 여러 직업군과의 만남 등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접근 시도

☞ 특정 직업군을 체험하는 방식이 아닌 진로에 대한 보편적 성숙을 이끌어내는 통합적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획

Ⅲ 사업 개요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일시	12. 8. (수)	7. 17. (목)	5. 20. (수)	4. 26. (화)	4. 27. (목)
장소	마포구청	마포구청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평화광장		
참여대상	5개 중학교	5개 중학교	5개 중학교	14개 중학교	11개 중학교
참가인원	청소년 1,400명 성 인 100명	청소년 1,954명 성 인 317명	청소년 1,759명 성 인 300명	청소년 2,844명 성 인 695명	청소년 2,241명 성 인 500명
참여부스	진로콘서트 체험,상담(50개)	진로콘서트 직업체험(39개),멘토상담(26개)	직업체험 61개	직업체험 105개	직업체험 103개
주요내용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 지역자원이 소개하는 **직업체험부스** 운영				

Ⅳ 프로그램 운영방식

구 분	사전예약체험부스	자유체험부스
운영방식	○각 부스별 참가학생 사전에 신청하여 매칭 ○부스별 40분간 프로그램 참여 (직업, 기관의 업무 소개 및 관련 직업 체험) ○학생) 1인 2개 부스체험	○40분간 체험부스 관람 · 체험 ○총 30~40개 부스 중 자유참여 ○학생) 1인 1개~8개 부스체험
1부)10:00~12:30	1회) 10:00~10:40 (40분), 2회) 10:50~11:30 (40분), 3회) 11:40~12:20 (40분)	
12:30~13:40	점심식사 및 휴식	
2부) 13:40~16:00	4회) 13:30~14:10 (40분), 5회) 14:20~15:00 (40분), 6회) 15:10~15:50 (40분)	

Ⅴ 세부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STEP1) 기획	STEP2) 준비	STEP3) 실행	STEP4) 정리
○중학교 진로교사 간담회 실시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행사기획 논의	○부스참여기관 섭외 지역 기업, 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단체별 부스내용 확정 부스 운영방식 선택 ○부스별 참가 청소년 매칭 ○참가단체/학교별 공지전달	○진로박람회 현장세팅 ○행사운영 ○학교)참가학생 만족도 설문 ○부스)운영자 만족도 설문	○학교)만족도 결과공유 운영평가 ○부스)만족도 결과공유, 감사 표시 사업연계 요청 ○스텝)행사운영 세부평가

◦ 참여 주체별 추진계획

중학교	지역사회	구청	봉사자
ㅇ중1 자유학기제 지원 ㅇ진로교사, 학년부장, 담임교사 협조 요청 ㅇ참가 청소년 특성, 개별 의견을 고려한 참가자 매칭	ㅇ기업,단체,공공기관,대학 진로교육 참여 독려 ㅇ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특성에 맞는 체험 구성 ㅇ사후 수고에 대한 격려 및 지속적 참여 요청	ㅇ청소년 진로교육 중요성 이해 및 참여 설득 ㅇ사업의 지속적 지원 설득 ㅇ공공기관의 책무성 강조 및 참여 독료 ㅇ구체적 업무 및 역할 부여 ; 보도자료 배포, 사후 구청장 감사서한 발송	ㅇ진로교육 참여 동기부여 (기관, 학부모, 지역주민 등) ㅇ사후 수고에 대한 격려, 지속적 참여 요청

V 주요성과 및 평가

◦ **지역 내 다양한 일터, 공공기관, 개인이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에 동참**하여 청소년들에게 값진 체험의 기회제공함. 어른들은 청소년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청소년은 다양한 직업인의 삶과 가치를 배우고 공동체를 몸소 느끼며, 앞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기회가 됨.

◦ **참가청소년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4.29점, 참가 교사의 만족도는 4.7점(5점 만점)으로 높게 응답**되어 진로박람회를 통해 지역 내 일터 및 직업과 정보를 수집하고 참가청소년의 진로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2016년도 만족도조사 결과)

◦ **체험부스의 운영자들은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욕구를 직접 느끼며, 관내 진로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어 향후 진로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지속적인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됨

V 활동사진

행사장 전경

시각장애 체험

아프리카 전통악기 연주

VR 체험

문화PD 직업소개

군인 직업소개

3D 프린팅 시현

드론조종사

'2016 마포진로박람회'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제4회 마포진로박람회 - 지역자원연계 직업체험의 날

우리 아이들의 진로고민해결을 돕고자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한 '2016 마포진로박람회와 발명특허페스티벌'이 마포구 14개 중학교 3,000명 청소년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11년 만에 찾아온 때 이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여러분이 흘리신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본 행사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101개 기관에서 500명의 직업멘토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각 학교의 선생님들과 참가 학생들의 감사인사를 받으며 각 부스에서 이뤄졌던 인상적인 만남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땅히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서면으로 대신함을 널리 헤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마포진로박람회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 DMC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동체의 장이자 교육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행사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역공동체를 통해 우리구의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값진 체험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 4. 28.

구청장 감사서한

중앙일보 경제

경제일반 재테크 증권 부동산 IT/과학 경제칼럼

[포토중앙]첫 방송 수줍은 미소...'마포 진로

[중앙일보] 입력 2017.04.27 15:02

상암중학교 학생들이 27일 서울 월드컵공원 야외에 임시로 설치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일 DJ 체험을 하고 있다. '2017 마포 진로박람회'가 열린 이곳 행사장에는 방송·교육, 문화·예술, 의료·공공 등의 분야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103개가 설치됐다. 사진 속 학생들도 이날 안내 멘트와 음악 선곡 등 실제 방송을 하는 것처럼 10분 동안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이들 상암중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포구 관내 11개 중학교 1· 2학년생 2300여명이 참가했다. 500명의 직업인 멘토들은 이날 행사장을 찾은

보도자료

2016 진로멘토 감사의 자리

❑ 2016 마포 진로박람회 영상: https://youtu.be/Pdn5vOqQUzI

地域資源連携 職業体験の日, マポ進路博覧会の事例

パク・ソンスク[マポ進路職業体験支援センター]

I 事業目的

進路や職業について悩む青少年に向け、地元と共に職業に対する正しい情報や進路の選択に必要な体験機会を提供して青少年の進路設計の力を強化する。

II 事業目標

イ. 地元資源を中心とした持続可能な進路教育プログラム

☞ 地域の青少年の進路への悩みを解決するためにあらゆる世代、構成員が参加
☞ いつも対面·接触して関係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地元の仕事先が参加
☞ 進路教育を地元社会と共同の課題として提示し、地元の資源を総合的に連携する場

ロ. 観覧から体験へ—進路博覧会として運営方式の変化を図る

区分	従来の博覧会	マポ進路博覧会
参加対象	不特定多数	ブース参加者を事前に確定 (中学校1年生) 事前予約ブース) 事前マッチング (参加人員、リスト確定) 自由体験ブース) 時間帯別に学校マッチング (人員確定)
ブース別運営	ブースごとに自由運営	ブース参加者の情報を前もって共有、年齢·性別に合わせてブースの活動を構成 事前予約ブース)14~15人 授業/体験(40分) 自由体験ブース)ブース別に自由に運営
参加者	体験時間予測不可能 (待機時間長い)	事前予約ブース (40の中2個が職業体験) + 自由体験ブース(45分間30~40の中選択体験) (計150分)

ハ. 統合的な進路教育としての進路博覧会

☞様々な地元の人々と関係を結び、あらゆる職業に触れるなど進路成熟度を高める多核的なアプローチをする

☞特定の職業を体験する方式ではなく、進路への普遍的成熟を見いだす統合的進路教育が行われるようにする

III 事業概要

区分	2013	2014	2015	2016	2017
日付	12. 8. (水	7. 17. (木)	5. 20. (水)	4. 26. (火)	4. 27. (木)
場所	マポ区役所	マポ区役所	ワールドカップ公園平和の公園平和広場		
参加対象	5の中学校	5の中学校	5の中学校	14の中学校	11の中学校
参加人員	青少年1,400人 大人 100人	青少年 1,954人 大人 317人	青少年1,759人 大人300人	青少年2,844人 大人 695人	青少年2,241人 大人500人
参加ブース	進路コンサート 体験相談(50)	進路コンサート 職業体験(39), メンター相談(26)	職業体験 (61)	職業体験 (105)	職業体験 (103)
主な内容	企業、公共機関、団体など地元の資源が紹介する職業体験を運営				

Ⅳ プログラムの運営方式

区分	事前予約体験ブース	自由体験ブース
運営方式	○各ブース別参加学生は事前に申し込んでマッチング ○ブース別40分間プログラムに参加 (職業、機関の業務紹介及び関連職業の体験) ○生徒)一人当たり二つのブース体験	○40分間体験ブース観覧・体験 ○計30~40のブースの中自由参加 ○生徒)一人当たり1~8つのブース体験
1部)10:00~12:30	1回) 10:00~10:40 (40分), 2回) 10:50~11:30 (40分), 3回) 11:40~12:20 (40分)	
12:30~13:40	ランチ及び休憩	
2部) 13:40~16:00	4回) 13:30~14:10 (40分), 5回) 14:20~15:00 (40分), 6回) 15:10~15:50 (40分)	

Ⅴ 推進計画の詳細

○段階別推進計画

STEP1) 企画	STEP2) 準備	STEP3) 実行	STEP4) 整理
○中学校の進路教員の懇談会を実施 ○運営に対する意見聴取及びイベントの企画議論	○ブース参加機関交渉 ○団体別ブースの内容確定 ○ブース別参加青少年マッチング ○参加団体/学校別告知	○進路博覧会現場準備 ○イベントの運営 ○学校)参加生徒満足度アンケート ○ブース)運営者満足度アンケート	○学校)満足度の結果共有運営評価 ○ブース)満足度結果共有参加へのお礼を表する事後の事業連携を養成 ○スタッフ)運営詳細評価

○참여 주체별 추진계획

中学校	地域社会	区役所	ボランティア
○中1自由学期制の支援 ○進路教師、学年部長担任の協力を要請 ○参加青少年の特性や個別の意見を反映した参加者マッチング	○企業、団体、公共機関、大学の進路教育参加を求める ○青少年に対する理解及びカスタマイズ去れた体験を構成 ○お礼を表し、持続的な参加を求める	○青少年の進路教育の重要性への理解と参加要請 ○事業の持続的支援要請 ○公共機関の責務を強調し参加要請 ○具体的な業務·役割分担、報道資料配布：区庁長の感謝状を発送	○進路教育の参加へのモチベーションを与える(機関、保護者、地元の住民) ○事後、感謝を表す持続的な参加を要請

Ⅴ 主要成果及び評価

○ 地域内の様々な仕事場、公共機関、個人が未来世代を育てる子とに参加し青少年には体験のチャンスを与える。大人は青少年に世の中をみる視野を広げる経験を提供し、青少年は様々な職業人としての暮らしの価値を学び、共同体を実感することによって将来を開拓する力が見につける。

○ 参加した青少年の満足度の調査結果を見ると平均4.29点、参加した教員の満足度は4.7点(5点満点)となった。進路博覧会を通じて地元の仕事場及び職業の情報が収集でき、参加青少年は進路を考えるに役立ったと評価した。 (2016年度満足度調査結果)

○ 体験ブースの運営者は地元の青少年が進路への欲求を実感し、館内の進路プログラムの参加に開かれた心が持たせた。それで今後の進路事業に連動させる方法を引き続き悩ませ進路教育への参加を施す契機となった。

V 活動写真

イベント現場

目の不自由な方への体験

アフリカ伝統楽器を演奏

VR体験

文化PDの職業紹介

軍人の職業紹介

3Dプリンティング試演

ドローン操縦士

'2016 마포진로박람회'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제4회 마포진로박람회 - 지역자원연계 직업체험의 날

우리 아이들의 진로고민해결을 돕고자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한 '2016 마포진로박람회와 방방특허페스티벌'이 마포구 14개 중학교 3,000명 청소년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11년 만에 찾아온 때 이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여러분이 흘리신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본 행사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101개 기관에서 500명의 직업멘토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각 학교의 선생님들과 참가 학생들의 감사인사를 받으며 각 부스에서 이뤄졌던 인상적인 만남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땅히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서면으로 대신함을 널리 헤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마포진로박람회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 DMC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동체의 장이자 교육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행사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역공동체를 통해 우리구의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값진 체험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 4. 28.

区庁長感謝状

중앙일보 경제

경제일반 재테크 증권 부동산 IT/과학 경제칼럼

[포토중앙]첫 방송 수줍은 미소...'마포 진로

[중앙일보] 입력 2017.04.27 15:02

상암중학교 학생들이 27일 서울 월드컵공원 야외에 임시로 설치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일 DJ 체험을 하고 있다. '2017 마포 진로박람회'가 열린 이곳 행사장에는 방송·교육, 문화·예술, 의료·공공 등의 분야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103개가 설치됐다. 사진 속 학생들도 이날 안내 멘트와 음악 선곡 등 실제 방송을 하는 것처럼 10분 동안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이들 상암중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포구 관내 11개 중학교 1·2학년생 2300여명이 참가했다. 500명의 직업인 멘토들은 이날 행사장을 찾은

報道資料

2016進路メンター感謝の場

❑ 2016マポ進路博覧会動画: https://youtu.be/Pdn5vOqQUzI

지역사회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사례

홍문화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Moon-Hwa Hong(Dongdaemun Career Work Experience Support Center)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소개

1. 사업명: 약령직업탐험대

2. 사업배경: 동대문구는 한의약특구로서 한국최대 약재시장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 약재시장 속에는 무역상, 탕약사, 제분사, 한약사, 한의사 등 다양한 직업인들이 있어, 학생들에게 한약이라는 자원 안의 다양한 직업과 직무를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관내 소재 대학인 경희대에 한약학과(국내 한약학과 중 최고)가 있어 그 인적자원까지 활용하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전문적인 진로교육 운영이 가능하다.

3. 사업협력구조

기관	역할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 총괄 기획 및 운영, 학교연계 및 대상학생 모집, 평가
서울약령시협회	약령시장 자원 연계 제공
경희대학교한약학과	대학생멘토 자원 제공
협동조합 TORY	대학생 자원 훈련 및 관리, 현장 모니터링
동대문구	예산 지원 (동대문구 혁신사업)
동부교육지원청	

4. 사업내용

1) 대상: 관내 초등 21개교, 중등 15개교 (초등 4학년~ 중학교3학년)
2) 장소: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약령시장
3) 내용: 한약 및 약령시장 소개, 한약학과 소개 및 진로 Q&A, 한방차 만들기, 직업체험, 워크북 작성, 소감 발표 및 만족도설문 (총 130분)

4) 세부내용

구분 (130분)	내용	진행	장소
40분	- 활동 안내 및 안전사항 공지 - 한약, 약령시장, 한약학과 소개 - 진로멘토링 Q&A	대학생멘토 대표	센터
	- 한방차 티백 만들기 - “약령직업탐험” 인터뷰 계획 수립	대학생멘토 조별 선생님 (학생5인당 멘토1인)	
70분	- 약령시장 속 4개 직업 체험 - 인터뷰, 워크북 작성	인솔: 대학생 멘토 (조별) 체험 및 인터뷰: 직업인 멘토	시장
20분	- 워크북, 소감 발표 및 만족도조사	경희대학교 대학생 멘토	센터

5. 활동사진

■ 현행 진로교육(또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점(1쪽 이내)

1.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진로교육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한 살아있는 체험식 교육 제공은 주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적극적인 협력, 참여를 요구하는 홍보가 아직까지 미비하다. 체험처를 발굴하거나 교육자원을 양성할 때 “자유학기제”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범국민적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을 제공하는 지역의 멘토에 대한 보답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노원구는 지역멘토가 일터를 체험처로 개방하는 횟수에 따라 봉사점수

를 누적하여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했다. 장기적 협력시스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에 노력이 필요하다.

3. 진로교육 질적 제고 위한 투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hub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진로체험코디네이터' 양성 및 현실적 예산 투입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나 자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센터의 초기 설립 이유가 자유학기제의 지원에 있어 대상이 중학교 1학년에 중점적이었으나 이제는 초,중,고로 확대되고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예산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대상별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학교 내 진로교육력 신장

'자유학기'에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외의 교사들이 진로 교육, 직업체험에 대한 관심과 소양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현장직업체험'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 중에는 학생들의 관심사가 고려되지 않은 직업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학생들이 체험을 준비하는 충분한 과정이 결여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근본적 원인은 체험처 발굴, 학생과의 매칭 역할을 학교에서 진로전담교사가 홀로 맡고 있어 일을 열정적으로 처리해내기 힘들다는 데 있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핵심팀처럼 함께 학교 내에 자유학기제를 함께 기획하고, 중추적으로 이끄는 교사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교장이 이런 협력을 잘 이끌어내 줘야 할 것이다.

5. 선택 가능한 진로교육 콘텐츠 확대

학생 수업 선택권과 교사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막상 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선택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학교에서 활용하기 쉬운 선택 프로그램 교안 및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연구기관 등이 적극 축적된 노하우를 모아 함께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의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地元と連携した進路教育プログラムの事例

ホン・ムンファ (東大門進路職業体験支援センター)

■地元と連携した進路教育プログラムの紹介

1. 事業名: 薬令職業探検隊

2. 事業背景: 東大門区は漢方薬特区として韓国最大の薬種市場がある地域だ。この薬種市場には貿易商、煎薬師、製粉士、漢方薬師、漢方医師など様々な職業人があり、生徒らに漢方薬という資源のなかで様々な職業や職務があるということを周知させることができる。また、地域内の慶熙大学に漢方薬学科（国内トップレベル）があってその人的資源まで活用できれば地域の資源を活用した専門的な進路教育の運営が可能である。

3. 事業の協力構造

機関	役割
東大門進路職業体験支援センター	事業の総括企画及び運営、学校との連携及び大学生募集、評価
ソウル薬令市協会	薬令市場の資源を連携提供
慶熙大学漢方薬学科	大学生メンター資源提供
協同組合TORY	大学生資源の訓練及び管理、現場のモニターリング
東大門区	予算の支援 (東大門区革新事業)
東部教育支援庁	

4. 事業内容

1)対象: 域内小学校21校、中学校15校 (小4年~中3年)

2)場所: 東大門進路職業体験支援センター、薬令市場

3)内容:漢方薬及び薬令市場の紹介、漢方薬学科の紹介及び進路Q&A、漢方茶作り、職業体験、ワークブックの作成、感想発表及び満足度アンケート（計130人）

4)詳細

区分 (130分)	内容	進行	場所
40分	- 活動案内及び安全事項の告知 - 漢方薬、薬令市場、漢方薬学科の紹介 - 進路メンターリングQ&A	大学生メンター代表	センター
	- 漢方茶ティーバッグ作り - 薬令職業探検インタビュー計画	大学生メンター組の先生 (生徒5人当たりメンター１人)	
70分	- 薬令市場内での4の職業を体験 - インタビュー、ワークブックの作成	引率: 大学生メンター(組別) 体験・インタビュー:専門メンター	市場
20分	- ワークブック感想発表・満足度調査	慶熙大学大学生メンター	センター

5. 活動写真

■ 現状の進路教育(または進路教育プログラム)の課題及び見直し(1ページ)

1. 進路教育の政策に対する社会的な認識の拡大

変化する教育政策や進路教育の元で学校と地元の協力からなる生きている体験型教育の提供は極めて重要だ。ただ、このような変化に対する社会的合意や積極的なコンセンサス、積極的な協力参加を求める広報が足りないのが現状だ。体験先を発掘する際、教育資源を養成する際に「自由学期制度」が何なのか説明しなくても済むよう国をあげての広報が必要だ。

2. 持続可能な進路教育の生態系を構築

生徒に職業体験を提供する地域のメンターに対する補償を現実的に悩まなければならない。一例で蘆原区は地元のメンターが仕事場を体験先として開放する回数に応じてボランティア点数をつけ、その点数を利用して地元の公共駐車場を無料に利用できる方策を導入した。長期的な協力システムが可能になるためには適切な補償の仕組みが求められる。

3. 進路教育の質的向上への投資

進路職業体験支援センターがより専門的な力量を備え、学校と地域社会のハブの役割を遂行できるよう「進路体験コーディネーター」を育成し、現実的な予算が投じ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現在の人材に対する専門性や資格に対して検証が行われていない問題に対しては最低の資格を設ける必要がある。また、センターの初期の設立理由は自由学期制度の支援であった。当時の対象は中1年生が中心となっていたものの、今は小・中・高校に拡大されその役割が拡大している一方、予算は足踏み状態だ。対象別に適切なコンテンツを開発し提供するためには現実的な予算の編成や投資が求められる。

4. 学校内の進路教育力の伸長

'自由学期'にも進路・進学相談教員以外の教員は進路教育や職業体験に対する関心や資質がないということが問題視されている。「現場職業体験」が効果的に運営されない理由の一つは生徒の関心事が反映されていない職業体験が行われるためだ。体験の過程が不備している問題もある。そしてこの根本的な原因は体験先の発掘、生徒とのマッチングの役割を学校で進路担当教師一人で担っているため情熱的に仕事をすることが難しいとの理由もある。アイルランドの転換学年制度の核心チームのように学校内で共に自由学期制度を企画しする中枢的な教師人材を確保し、校長がこの協力を後押しすべきだ。

5. 選択可能な進路教育のコンテンツ拡大

生徒の授業の選択権と教師の自律性がさらに拡大されると予想されるなか、生徒が希望する良質の選択プログラムが多くないという問題もある。学校では活用しやすい選択プログラムを考案し教材を提供するために学校・進路職業体験支援センター・研究機関などが共に蓄積されたノウハウを収集してプログラムの開発に乗り出す必要がある。また学校で行われる全般の活動が上向き標準化されるよう積極的に投資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일에 대한 호기심, 질문이 생생한 '초등 동네일터스탬프 투어'

서정화(노원상상이룸센터)
Jung-Hwa Seo(Nowon Career Work Experience Support Center)

1. 사업목적

초등학생 대상으로 동네일터의 일경험을 통해 일이해와 일에 대한 가치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탐색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진로자기이해를 기반으로 체험처를 발굴 및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맞는 맞춤형 진로탐색이 되도록 한다. 마을의 다양한 진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신나고 생생한 현장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2. 진행개요

- 5,6학년 학생 대상 지역사회 일세계 반영 현장 체험 중심 진로교육
  - 진로센터, 학부모지원단 구성 지역사회 진로체험일터 발굴, 교사-학부모-유관기관전담자 협력으로 진로체험 실시
  - 현장중심으로 한 진로체험 활동으로 '안전'확보를 위한 신뢰시스템과정 매뉴얼 공유, 학부모 체험지원코치 협력으로 체험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미있는 현장중심 진로체험 기획 실행
  - 교과과정과 연계 사전교육(4차시)-동네일터스탬프투어(4차시)-사후교육(4차시)으로 실시

○ **참여 초등학생 179명(2개교), 학부모17명, 체험일터 24개소(2회), 멘토30명**

○ 협력구조

1단계(사전협의)	⇒	2단계(진로체험활동)	⇒	3단계(평가)
- 교사, 센터 실무진 : 교과 연계 수업안 구성 및 진행을 위한 안전 구조 협의 - 학부모 지원단 구성 및 교육, 동네 체험처 발굴		교과과정 연계를 통한 동네일터스탬프투어 실시		운영기획단, 학부모코치단 평가 및 환류계획

○ 동네일터스템투어 체험구성 (1일, 40분*2곳)

구성	시간	내용
- 멘토 및 일터소개	- 10분	- 인터뷰
- 일터 체험	- 20분	- 간단체험 예) 책방분류코드런닝맨, 은행저축통장만들기, 주민자치센터호적등본발급, 커피숍'너를위한음료',캡스'보안이뭐예요? 경찰서'출동!유해한곳안전시찰'
- 질문 및 마무리	- 10분	- 스템프 받기/ 한 줄 소감

○ 사진자료

학부모지원단교육

학부모-학교-센터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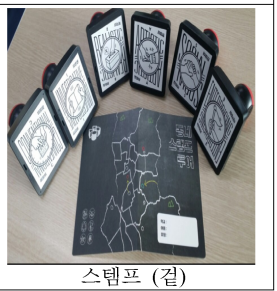
유치원

경찰서

한의원

주민센터

스템프 (안)


스템프 (겉)

3. 효과

초등학생들이 진로체험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확장된 새로운 관계에 대한 경험이었다. 그간 동네에서 소비자로서만 이용하던 일터들을 다른 모습, 다른 내용으로 학생들은 체험했다. 치과에서는 새로운 친밀감이 생겼으며 도서관의 분류법, 청구기호 등은 새로운 앎이었다. 은행에서는 다소 지루하고 딱딱한 분위기지만 일터를 개방하고 수업을 준비하신 열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평소 보기만 한 행위에서 돈도 직접 세어보고, 통장도 만들고 입금과정도 진행해 보았다. 무인경비시스템 일터에서는 하는일, 복장의 중요성, 상황실은 일상에서 접촉하기 어려운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만날 수 있었다. 진료하는 과정을 시청각자료로 준비하셔서 물리치료에 쉽게 이해를 도와주시는 병원 선생님들도 계셨고 경찰지구대에서는 유해환경 관련 퀴즈 준비와 함께 맞추는 친구들에게 상장을 주는 배려도 보여주셨다. 한의사선생님은 쉽게 풀어 한의학에 대한 설명과 쏟아지

는 건강호기심에 꼼꼼한 답변, 직접 맥을 짚어보고 침, 뜸, 환약, 한약 등에 대해 체험도 할 수 있었다. 체험개방을 난감해 하던 주민센터는 등본발급 등 간단한 체험 진행을 기획하셨고 지역공무원의 일은 보이는 행정적인 일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옥상텃밭 가꾸기까지 다양함도 들려주셨다. 음악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음악관련 일은 가수만이 아닌 악기대여, 악기연주를 비롯한 다양한 음악관련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정보를 전달하셨다. 학생들은 동네에서 일하는 어른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간단한 일경험을 할 수 있던 경험이 새로웠으며 그간 소비자로써 사용하며 스쳐 지나가던 곳들이 직업인들이 뛰고 있는 삶의 현장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평가했다. 자신들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고 온갖 준비를 하신 직업인 멘토들과의 접촉은 새로운 호기심을 갖게 하였고 윗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일하는 사람들의 자부심과 태도를 경험케 했다.

4. 체험교육 현장이 안고 있는 걸림돌 및 한계 (동네일터스템프투어에 한 함)

지속성의 한계 = 현장진로체험의 위축

동네일터스템프 투어는 학생-학교-학부모-지역센터-지역일터 모두의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에 대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은 교육지원청과 지역센터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센터를 지원하였고 동시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와 예산지원 등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반면 2017년 교육지원청의 팀변화로 같은 프로그램에 안전 및 행정절차에 대한 다른 가치판단(인솔은 교사만이 가능하다. 학부모 인솔은 불법이다. 학교에서 학부모 모집 복잡하다. 학교가 협업하는 구조가 아닌 센터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서비스로 제공할 때 학교진행 할 수 있다.)이 제기되어 이후 진행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017년도는 지원청을 제외한 학교-센터 진행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기반지원 없이 학교-센터의 판단만으로 지속하기는 한계가 있다.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대부분 행정적인 문제) 대안을 만들며 헤쳐가는 방식이 아닌 문제가 있으니 하면 안된다는 결론은 현장 중심의 진로체험 자체를 위축시킬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다.

仕事に対する好奇心、生々しい質問がある「小学の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

ソ・ジョンファ(蘆原サンサンイルムセンター)

1. 事業目的

小学生を対象に町の仕事場で仕事を経験させ、仕事に対する理解や仕事に対する価値を形成し、地域社会と連携した進路を探る。生徒の進路に対する自己理解を元にして体験先を発掘し、生徒自らの選択に合わせた進路探索になることを目指す。町の様々な進路教育のインフラを構築しこれを活用した体験プログラムを提供することによって楽しく臨場感あふれる現場での体験を中心とする進路教育を実施する。

2. 進行の概要

- 5、6年生の生徒を対象に地元の仕事世界を反映した現場体験型の進路教育
- 進路センター、保護者サポーターを構成し、地元の進路体験仕事場を発掘、教員－保護者－関係機関の担当者が協力して進路体験を実施
- 現場を中心とする進路体験活動で「安全」確保するための信頼システム過程のマニュアルを共有。保護者が体験サポーターとして協力し、体験過程の安全を確保。意味のある現場中心の進路体験を企画・実行
- 教科の過程と連動して事前教育(4回)－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4回)－事後教育(4回)で実施

◯ **参加**　小学生 179人(2校)、 保護者17人、 体験仕事場24か所（2回） メンター30人

◯ **協力構造**

1段階（事前協議）	⇒	2段階（進路体験活動）	⇒	3段階（評価）
- 教員、センター執務陳：教科と連動した授業案を構成、進行のための安全構造を協議 - 保護者サポーター構成及び教育、町の体験先を発掘		教科の過程に連動した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を実施		運営企画団、保護者コーチ団の評価及びフィードバック

◯ 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の体験構成 **(1日、 40分*2か所)**

構成	時間	内容
- メンター及び仕事場の紹介	- 10分	- インタビュー
- 仕事場体験	- 20分	- 簡単体験　例）本屋の分類コードリーディング、銀行の貯蓄通帳づくり、住民センターでの戸籍発給、喫茶店「君の飲み物」、キャップス「セキュリティって何ですか？」、警察署「出動！有害施設、安全視察」
- 질문 및 마무리	- 10分	- スタンプ獲得・一言コメント

◯ 写真資料

保護者サポーター教育

保護者-学校-センター協議

幼稚園

警察署

漢方病院

住民センター

スタンプ（裏）

スタンプ（表）

3 . 効果

小学生が進路体験の過程で得た最も大きい成果は拡大された新しい関係への経験だった。これまで町で消費者として利用してきた町の仕事場の違う様子、違う内容を生徒は体験した。歯科では新しい親密感ができ、図書館の分類法、請求記号などは新しい知識だった。銀行は多少つまらなくて固い雰囲気だったが、仕事場を開放し授業を準備して下さった熱意が感じられた。普段は見ていただけだったが、金を数えたり、通帳を作ったり入金もしてみた。無人警備システムの仕事場で行われる仕事、服装の重要性が分かり、状況室は日常生活では接することのできない厳しい仕事をする人々の環境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診療をする過程を視聴覚資料として準備してもらい、物理療法を分かりやすく説明して下さった病院の関係者もいて、また警察署では有害な環境に関するクイズを用意し、当たった人に賞状を渡す配慮もあった。漢方医師は漢方医学を分かりやすく説明し、質問や健康に関する好奇心にも丁寧に答えてくださった。また直接検脈をしてもらい、針、灸術、丸剤、漢方薬なども体験できた。体験開放を躊躇した住民センターは謄本発給など簡単な体験を企画し、地元の公務員の仕事は目に見える行政的なことから屋上菜園など見えない様々な仕事があるということを聞かせた。音楽会社を運営する社長は歌手だけではなく楽器の貸し出しや楽器の演奏など様々な音楽関連仕事に携わっている方々の情報も伝えてくださった。生徒らは町で働く大人に直接会い、話を分かち合い、仕事を簡単にでも経験したその週間が新しく感じられたと、これまで消費者として利用し、通りすぎていた所々が職業人が走っている生活の現場であることを認識し始めたと評価した。自分達のために手間隙作って下さり、あらゆる準備をして下さったメンターとの接触は生徒に新しい好奇心や上の世代への前向きな認識を持たせ、また働く人の自負心や態度も経験できた。

4. 体験教育の現場が抱えている障害物や限界 (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に限る)

持続性の限界 = 現場進路体験の縮小

町の仕事場スタンプツアーは生徒ー学校ー保護者ー地域センター地元の仕事場ともどもに肯定的な経験をさせる成果があるものの持続性に関する課題がある。
このプログラムは2016年には教育支援庁と地域センターの協力で行われた。教育支援庁はプログラムが開発できるようにセンターを支援すると同時に作られたプログラムを学校で進行できるように広報や予算の支援などの環境を整えた。一方2017年は教育支援庁のチームが変って同じプログラムについて安全及び行政手続きに対する異なる価値判断 (率いるのは教員だけが可能。保護者が率いるのは不法だ。学校で保護者を募集するのが複雑だ。学校がコラボレーションする仕組みではなく、センターがすべての手配をしており、サービスとして提供する時のみ学校で進行できる) が提起され、これからの進行は先行が不透明だ。2017年度は支援庁を除いた学校ーセンターのみの進行として行われている。教育支援庁の支援なく、学校ーセンターの判断で持続するには限界がある。抱えている問題に対して (大半が行政的な課題) 対策を作り、解決して行く方式ではなく問題があるからやめるという結論は現場中心の進路体験事態を縮小させる恐れがある。

꿈꾸는 날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이주현(양천구 교육지원과)
Ju-Hyun Lee(Yangcheon-Gu Office)

□ 추진배경

○ **지역 중심의 직업인 멘토풀 발굴 및 멘토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 마을 단위의 진로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인 멘토의 교수법을 향상시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 → 검증 안된 외부업체 직업인 멘토 활용 지양

○ **지역의 학부모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 부모의 편향된 진로의식을 개선하고, 진로교육 주체로서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지역사회 관심 및 참여율 제고

○ **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사전 협의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 학교별 맞춤형 직업인 멘토링을 실시하고, 마을과 학교간의 네트워크 강화
  →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학교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중상시 ○ **운영장소** : 신청학교 각 교실

○ **운영시간** : 80~90분(2교시 진행) ○ **대 상** : 양천구 관내 중·고등학생

○ **내 용** : 멘토발굴 / 역량강화교육 / 민·관·학 협력을 통한 사업 운영

○ **운영 방식**

연간 일정 조율		학교 방문 사전 협의		직업인 멘토 섭외		꿈꾸는 날 운영
연초	⇒	행사 5주전	⇒	행사 3주전	⇒	행사당일
– 진로교사협의회 – 참여학교 파악 및 일정 조율		– 희망직업군조사 – 운영 환경 점검		– 희망직업군 – 미래유망직업 – 학생흥미도 고려		– 사업보조 및 모니터링 실시 – 만족도조사 실시

※ 기본 교육을 이수한 멘토 중심으로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모든 멘토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추진실적 (2016년 실적)

1. 지역중심의 직업인 멘토풀 발굴

○ 직업인 멘토풀 : 103명 발굴(2017.04.01. 기준)

- 지역의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멘토풀 확보
- 활동 중인 직업인 멘토의 입소문을 통한 멘토풀 확장

2. 직업인 멘토의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학생과의 소통 방법, 교수법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총 5회

-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대한 부담 해소
- 학생의 인권 및 발단단계를 고려한 교수법 안내
- 멘토의 역량 강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3.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관·학 협력

○ 프로그램 기획 회의 및 사전 회의 : 총 40회

- 지역의 학부모와 함께 프로그램 기획
- 학부모와 함께 학교로 방문하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사전 회의 실시
- 학교의 특성이나 요구에 부합하는 교별 맞춤형 진로콘서트 기반 마련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 총 28회

- 학부모들과 함께 진로콘서트 공동 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 민·관·학 협력을 통해 교사 및 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 학부모 역량 강화

4. 꿈꾸는 날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 운영

○ 꿈꾸는 날 -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운영 : 총 28개교 멘토 345명, 학생 10,309명 참여

- 한 학년의 학급 수 만큼 직업인 멘토를 지원
- 2교시 동안 직업인 멘토가 중심이 되어 교실별 진로멘토링 실시

□ 추진성과

○ 중·고등학교 84%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지원 : 33개교 중 28개교 지원

○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 정례화 : 총 15회 실시(초등 1회 / 중등 7회 / 고등 7회)

○ 프로그램 홍보, 대상 인원의 규모 확보를 통한 진로교육 지지 기반 마련

○ 민·관·학 협력체계 기반 조성 : 학부모-진로교사-양천구청 협의·운영

○ 지역 기반의 진로교육력 향상 : 직업인 멘토, 학부모의 역량 강화

□ 발전방향 : 양천구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34개교) 확대 지원 예정
지속가능한 지역기반의 진로교육 환경 구축

《 夢見る日- 学校を訪れる進路コンサート- 》

イ・ジュヒョン(陽川区教育支援課)

□ 推進背景

○ 地域中心の職業であるメンターを発掘しメンター力を引き上げる教育を実施し、

- 町単位で進路教育の環境を作り、専門メンターの教授法を向上させプログラムの質のレベルを保証 → 検証できない外部からの専門メンター活用は慎む

○ 地域の保護者と共にプログラムを企画し、運営することによって、

-保護者の偏っている進路意識を改善し、進路教育の主体として参加することによって地域で成長し活動するチャンスを得る → 地域社会の関心や参加を促進

○ 学校の進路進学相談教員との事前協議及び需要調査を実施し、

- 学校別カスタマイズされた専門メンターリングを実施し、町と学校のネットワーク強化

→官民学のガバナンスを通じて学校ごとの特殊性を考えたプログラムを運営

□ 運営概要

○ 運営期間 ： 年中　　○ 運営場所 ： 申込み学校の各クラス

○ 運営時間 ： 80~90分(2 限で進行)　○ 対象 ： 陽川区の中高生

○ 内容 ： メンター発掘 / 力量強化教育 / 官・民・学の協力を通じた事業運営

○ 運営方式

年間スケジュール調整		学校訪問及び事前協議		専門のメンター雇用		夢見る日運営
年明け	⇒	イベント5週前	⇒	イベント3週前	⇒	イベント当日
-進路教員協議会 -参加校の把握及びスケジュール調整		-希望職業の調査 -運営環境の点検		-希望する職業 -将来の有望職業 -学生の興味を考慮		-イベント補助やモニタリング -満足度調査実施

※ 基本教育を履修したメンターを中心にプログラム参加機械を提供

※ 全メンターを対象に児童・青少年の性犯罪経歴を照会する

□ これまでの実績（2016年の実績）

1. 地域を中心とした専門のメンターを発掘

○ 専門のメンター ： 103人発掘(2017.04.01.現在)

- 地域の保護者が中心となりメンターを確保
- 現役の専門メンターの口コミを通じてメンターを拡充

2. 専門メンターの力量強化の教育実施

○ 学生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法、教授法の向上に向けた実施：計5回

- 多数の学生を対象とする講演への負担を軽減
- 学生の人権及び発達段階を考えた教授法を案内
- メンターの力量強化を通じたプログラムの質的向上を図る

3. プログラムの運営を通じた官・民・学の協力

○ プログラムの企画及び事前協議: 計40回

- 地元の保護者と共にプログラムを企画
- 保護者と共に学校を訪問し、プログラム運営の支援に関する事前会議を実施
- 学校の特性や要求に敵する学校別カスタマイズされた進路コンサートを計画

○ プログラム運営の支援及びモニタリング: 計28回

- 保護者と共に進路コンサートを共同で運営し、モニタリングを通じてプログラムを改善
- 官・民・学との協力を通じて教員及び公務員の仕事を軽減し保護者の力量を強化

4. 夢見る日 - 学校を訪れる進路コンサート- 運営

○ 夢見る日 - 訪れる進路コンサート運営 ： 計28校、メンター345人、生徒10,309人参加

- 1学年のクラスの数ほど専門メンターを支援
- 2限で専門メンターが中心となりクラス別に進路メンタリングを実施

□ 成果

○ 中高校の84%を対象に進路教育支援 ： 33校の中28校を支援

○ 進路進学の相談教員の協議会を恒例化 ：計15回実施(小1回 / 中7回 / 高7回)

○ プログラムの広報、対象とする人員の規模を確保し進路教育の指示基盤を作る

○ 官・民・学の協力体制作り:保護者ー進路教員ー陽川区役所の協議・運営

○ 地元を基盤とする進路教育力の向上 ： 専門メンター、保護者の力量強化

□ 発展方向 ： 陽川区内の全中高校(34校)へ拡大支援を目指す

持続可能な地域を基盤とする進路教育の環境構築

Star Gate 진로학교 운영사례

권인수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
In-Su Kwon(Gangdong Career Work Experience Center)

1. 진로교육 사례 소개

▢ 교육목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 직업의 창출과 성공적인 직업설계를 위해 미래 핵심 인재역량을 학습
- 자신만의 적성과 재능을 표출하여 개인의 가치관에 부합한 진로탐색 능력 향상
- 다양한 산업분야의 미래를 통해 확산적 사고방법을 터득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

▢ 운영내용

- StatGate 진로학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중등용 창의진로설계 교육으로 서울시 강동구 중학교에 전면 보급되는 프로그램
- 중등 1학년은 미래 직업세계 & 창직에 대해 배우며 2학년은 글로벌 인재력 & 리더십을 학습, 3학년은 기업가정신 & 창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미래핵심인재로서의 역량을 강화

-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은 인간의 지속적인 확장성을 대표하는 창의성을 내포하는 직업으로 학년별 모든 교육과정에는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공통으로 운영 되고 있음
  - 2016년부터 중등 3개년 진로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2년차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 프로그램 개발은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장, 강동구 진로진학상담교사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학년별 3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프로그램 교수법은 학생중심의 토론, 토의, 참여, 게임을 통해 진행되며 학생용 워크시트를 제공함

▢ StarGate 진로학교 참여 학생 소감내용

-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활동하는 것이 광장히 인상깊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다양한 미래직업을 알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고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길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자동차의 개발로 인해 인력거가 사라지게 되었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로봇이 일자리를 차지해도 로봇이 못하는 것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을 것이다.

2. 현행 진로교육(또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점(1쪽 이내)

▢ 한국과 일본의 직업체험의 비교를 통한 개선

- 한국의 직업체험은 직업체험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일본의 커리어스타트 위크의 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교과학습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음

- 일본은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장과 체험기관 및 시설에 적응하고 자신감을 쌓아가는데 최소 3일에서 5일로 인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1일 6시간의 체험으로 운영되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를 알고 멘토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확립하고 배우는데 한계점이 있음
- 또한 한국은 1학년 시기에 현장직업체험이 운영되어 학년별 진로탐색 성숙도에 따른 성장중심의 직업체험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입시와 진학에 초점이 맞춘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의 진로탐색의 지속적인 발견을 기대하기 어려움
- 직업체험의 평가지표인 인간관계형성능력, 정보활용능력, 미래설계능력, 의사결정능력의 4가지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직업체험이 아닌 학생 성장중심의 직업체험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처의 교육력 향상과 지원이 필요함
-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직업체험과 더불어 자신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진로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
- 직업체험장의 질적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강화와 이에 따른 제반마련, 인적자원의 구성, 교육관계자, 학부모, 주민대표 등 지역별 운영협의회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직업체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교육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가 아닌 “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 ” 는

  범 사회적 교육인식과 지역마을 중심의 공동의 교육인식이 확장되길 기대함

Star Gate 進路学校運営事例

クォン・インス(江東進路職業体験センター)

1. 進路教育事例の紹介

□ 教育目標

- 4次産業革命に対する新職業の創出や成功的な職業設計に向けた未来のコア人材の育成に必要は内容を学習
- 自分だけの趣味や才能を探り、個人の価値観に適合する進路探索能力の向上
- 様々な産業分野での未来から拡散的な考え方を習得し創意な思考力を養う

□ 運営内容

- StatGate進路学校は生涯周期別に合わせた中学生用の創意進路設計教育で、ソウル市江東区の中学校に普及されるプログラム
- 中1年生は未来の職業世界＆創職について学び、2年生はグローバル人材力＆リーダシップを学習
  3年生は企業家精神＆起業を通じて4次産業革命の未来核心人材としての力量を強化
- ロボットが代替できない職業群は人間の持続的な拡張性を代表する創意のある職業であり、学年別の全教育過程では創造性を高める教育プログラムが共通して運営されている
- 2016年から中等3ヶ年進路教育を支援しており、今年で2年目を向かえていて事業を継続して拡大する
- プログラムの開発は江東進路職業体験センター長、江東区進路進学相談教師と共に開発した。学年別3時間の教育過程で運営されている。
- プログラムの教授法は学生を中心とする討論、討議、参加、ゲームなどを通じて進行し、学生向けのワークシートを提供する。

□ **StarGate進路学校に参加した学生のコメント**

- 固定観念を破り、自分がなりたいと思うことに対して活動するのが印象深い。これまで見られなかった様々な未来の職業が分かって楽しかった。夢を持っている人々がその道を作っていくことを通じていろんなことを学んだ。

- ロボットが人の仕事を代替するのは正しいと思う。自動車の開発で人力車がなくなり新しい仕事ができた。これからロボットにとって変わる仕事があるとしてもロボットのできないことを人間がしているため、我々にはできる仕事が多くあると思う。

2. 現状の進路教育（または進路教育プログラム）の問題点及び改善（1ページ内）

□ 韓国と日本の職業体験の比較から見た改善

-韓国の職業体験は職業体験に対する社会的、教育的要求に応じて行われており、日本のキャリアスタートウィークモデルと類似した形として教科の学習に連動して進められている。

-日本は青少年が職業体験場や体験機関及び施設になれて自信を持てるに最低3日~5日はかかると認識しているが、韓国は1日6時間の体験で運営されていて職業に対する具体的な内容を把握したり、メンターとの持続的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して正しい職業価値観を確立・習得したりするのが難しい

-また、韓国は1年生の時に現場職業体験が運営され、学年別の進路探索を深化する成長中心の職業体験が途絶える傾向があり、大学の入試と進学に焦点を合わせた教育過程によって生徒の進路探索の持続的な発見を見いだすことが困難

-職業体験の評価指標である人間関係の形成能力、情報活用能力、未来設計能力、意思決定能力の４つの成果を上げるためには成果中心の職業体験ではなく、生徒中心の職業体験で教育プログラム及び体験先の教育力の向上やサポートが求められる

- 生徒の進路成熟度を高めるためには職業体験と共に自分の内面を持続的に探求し、進路思考を拡大できる教育課程の見直しが必要だ。

- 職業体験場の質的拡大のためには進路職業体験支援センターの役割を強化し、これに伴う諸般を作り、人材を確保し、教育関係者、保護者、住民代表など地域別の運営協議会が強化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職業体験の質的成長を図るためには韓国社会の教育に対する認識の変化が求められる。「わが子は私が育てる」のではなく「私たちの子供は一緒に育てる」という社会レベルの教育認識や地元を中心とする共同の教育認識が拡大することが望まれる。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의 진로교육사례

이충한(하자센터 기획부장)
Choong-Han Lee(Seoul Youth Factory for Alternative Culture)

1. 청소년 전환기 학습과정 사례 소개

*** 오디세이 학교 -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고교자유학년제'**
(odyssey.haja.net, facebook.com/odysseyhaja)

오디세이 학교는 일반고 1학년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1년 동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중점과정을 선택하여 깊이 배우며, 자기 자신과 세상을 알아가는 기회를 갖게 하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의 고교자유학년제 교육과정입니다. 설립 준비과정부터 깊게 관여한 하자센터는 2016년부터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방과 문화예술과정을 중심으로 생활/관계/진로 역량을 키워 삶과 배움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획일적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 활동과 경험을 통해 주체적 학습기획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전환기 교육 모델을 만들고 시대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육 담론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 목화학교 - '여유로울 권리와 감동받을 자유를!'**
(gapyear.productionschool.org, facebook.com/cottenschool)

목화학교는 15세~17세 전환기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실과과정으로 1년제 전환기과정의 학교입니다. 목화살이의 리듬에 맞추어 1년을 보내면서 자신과 친구들, 사회와 자연, 그리고 지구와 친해지는 학교입니다. 숨 가쁜 템포로 이뤄진 생활을 잠시 멈추어 일상의 작은 경험들을 쌓고 생활의 잔 근육들을 키워나가며 자신의 리듬을 만드는 학교입니다. 크게 자전거와 농사, 목공으로 몸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 글쓰기 및 문화작업과 글로벌 언어학습을 통해 생각의 리듬을 연주해가는 과정, 다양한 또래 청소년들과 손님들

을 초대하여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는 공유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또 기존의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고, 잠시 쉬어가면서 전환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1주일간 목화학교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주일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환기 학습과정의 의의**

지식경제, 혹은 자동화(인공지능)경제로 들어선지 오래지만, 한국의 진로교육은 아직도 구시대의 '선형적 단일 진로 모델'에 기반한 명시적 지식의 습득과 자격취득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문명의 전환기와 삶의 이행기가 겹친 탓에 어떤 세대보다도 더욱 유동적인 삶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경직된 진로직업교육의 틀 안에서 대부분 동기성을 상실하고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전환기 학습과정은 앞만 보고 내달려온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활 기술, 배움을 위한 용기, 사회에 대한 감각과 신뢰를 가져볼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합니다.

2. 청소년 전환기 학습과정의 개선점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하여 다양한 층위에서 전환기 학습과정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하자센터는 지속적으로 사회와 소통하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진로를 탐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ソウル市立青少年職業センター（ハザセンター）の進路教育事例

イ・チュンファン(ハザセンター企画部長)

1. 青少年の転換期の学習過程を事例を紹介

* オデッセイ学校 - ‘暮らしの意味や方向を探る高校自由学年制度’

(odyssey.haja.net, facebook.com/odysseyhaja)

オデッセイ学校は普通校の1年生らが学校の外で1年間自律かつ創意のある重点過程を選択し深く学び、自身と世の中を分かるためのチャンスを持たせるソウル市教育庁の高校自由学年制度の教育課程です。設立当時から深く関係してきたハザセンターは2016年から協力機関として参加し、工房と文化芸術過程を中心とした生活・関係・進路の力量を強化して生徒が暮らしと学びの主体になるようにする教育課程を運営しています。長期的には画一的な教科過程から脱し様々な学習活動や経験を通じた主体的学習企画を向上させる転換期の教育モデルを造り、時代に沿った新しい教育論を社会的に喚起させる契機を作りたいと思います。

* コットン学校 - ‘のんびりする権利と打たれる自由を!’

(gapyear.productionschool.org, facebook.com/cottenschool)

コットン学校は15 ~ 17歳の転換期を向かえた青少年のための特別実科過程を運営する1年制の転換期過程の学校です。綿の周期に合わせて1年を過ごしながら自分と友だち、社会と自然、そして地球と親しむ学校です。激しいテンポの生活から離れて日常の些細な経験を積み重ね、生活のきめ細かなことを身につけて自分なりのリズムを作っていく学校です。

大きく分類すると自転車の運転、畑作、木工で体のリズムを作る過程、作文や文化作業、グローバル言語学習を通じて自分の考え方のリズムを演奏する過程、青少年の仲間やゲストを招待し学習した内容を分かち合う共有の過程となっています。また従来の生活から完全に離れることは難しく、一息入れながら転換を向かえる時間を作ろうとする青少年たちが1週間コットン学校を体験できるプログラムとして「一週間学校」も進行しています。

* 転換期学習過程の意義

知識経済、あるいは自動化（人工知能）経済になって久しくなりましたが、韓国の進路教育は依然として旧時代の「線形的な単一進路モデル」に基づいた明示的な知識の

習得と資格の獲得に偏っています。文明の転換期や暮らしの移行期が重なっているためいかなる世代より流動的な生活をしている青少年はこのような堅苦しい進路職業教育の枠の中でその大半がモチベーションを失いつつ不安を抱いています。転換期学習の過程は将来だけを考えて走ってきた青少年たちに自分の生活を振り返って生活のスキル、学びへの勇気、社会に対する感覚と信頼学べる時間とスペースを提供します。

2. 青少年転換期学習過程の改善

ソウル市教育庁をはじめ各分野で転換期学習の過程に対する実験は行われているものの、まだ社会的合意は得られていません。これを受け、ハザセンターは持続的に社会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しながら様々な年齢が進路を探ることができるプログラムを開発します。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ese cases on career education

2. Japanese cases on career education
   Shimizu Takahiko(Arakawaku Daisan Middle School)
   Mikami Masaki(Publich High School in Aomori Prefecture)
   Kamita Kiyo(Hokkaido Shihoro Senior High School)
   Okabe Atsushi(Sapporo Otani University)
   Akimoto Shinji(Reitaku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Wakae Maki(Careerlink Inc.)
   Yajima Ryutaro(Chikuseisi Municipal Elementary School)
   Kyan Hiroe(GoodJob Okinawa Project, NPO)
   Hirano Satomi(Hankyu Hanshin Holdings, Inc.)
   Ishii Akiko(Minato Shirokane Elementary School)

Shimizu Takahiko(Arakawaku Daisan Middle School)

「キャリアの実践とその課題」

~学ぶ意欲を高めるキャリア教育の推進とその課題~

清水隆彦(Shimizu Takahiko, 荒川区立第三中学校　校長)

キャリア教育の全体像（学校経営方針に位置づける）

現在の日本の公立中学校は、校長が経営ビジョンを示し、選ばれる時代に入ったと考える。つまり、校長の発想、学校経営戦略の具体策こそが、学校組織を大きく変化させる。

現在、社会ではニート、フリーター問題、離職率の増加、不況の影響を受ける就職戦線等の厳しい現実を見たとき、小中学校の義務教育段階から、変化する時代を力強く生き抜く力を育成するキャリア教育の推進が極めて重要なもの考える。時代の変化に応じた将来を見通す力、社会生活に強く順応できる力を育てなくてはならない。そのため学校経営方針では、「全ての教育活動をキャリア教育の視点で実践する」としている。

本校では、キャリア教育を**「全教育活動通じて社会人・職業人・地域人を育成する教育」**と定義し、様々な教育活動を実践している。管理職の指導力が大きな課題なる。

１．外部人材と「つながり感」を生かすキャリア教育の実践例

キャリア教育の推進のため、地域人材の活用をはじめ、地域素材を生かす取り組みを数多く実践している。それぞれの取り組みには、地域社会、地域人材との連携した協力関係が不可欠であり、正に「つながり感」という共通のキーワードが浮かんでくる。地域を巻き込んだ組織的で系統性のある取り組みは、生徒を変容させるとともに、教職員の意識改革にもつながっていく。さらに地域人材との協働は、自然と地域の中の学校を強く認識させ、単なる教育参加から教育支援という形に変容していく。

（1）校内ハローワーク

「校内ハローワーク」は、３０業種の方々を講師に招き、毎年、３講座を受講する。講師へお願いする取り組みのねらいは、社会人になるために中学生である今、何を学んでおくのか、今身につける必要のある力についてお話しいただく。生徒は将来の生き方をイメージし、同時に現在の生活を見直すことにつなげてい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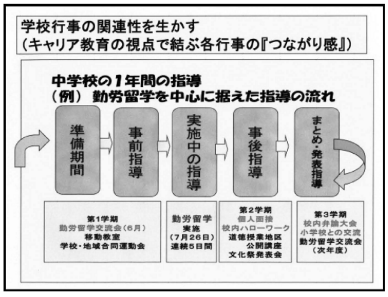
（2）５日間の職場体験･･･『勤労留学』

本校で５日間連続の職場体験を始めて１３年目となる。職場体験先は、進路指導主任を中心に、管理職、学年を超えた全教職員の組織的に取り組む。また、行政機関からの紹介、キャリア教育コーディネーターの支援も重要な要素となっている。

職場体験のねらいは、生徒一人一人が望ましい社会性・勤労観・職業観を育成することであり、次の３つを指導の大きな柱として実施した。①職場体験を通じて学校生活を見直す②将来自分がつきたい職業についての意識を高める。③働くことを通して、社会性を身につけ、勤労の喜びを知る。④職場での勤労を通して、人と人とのかかわり方等を学ぶである。

２．キャリア教育推進のための方策

学校行事に関連性をもたせる重要性



とかく職場体験等の行事は、該当学年の単発的な学年行事に終わる傾向がある。本校では、全ての教育活動をキャリア教育の視点で見直し、各行事に関連性を持たせる実践を行っている。

職場体験を一例に説明すると、６月には事前準備として職場体験交流会が行われ３年生より前年度の体験が２年生へと伝える。また、専門家によるマナー講座を行う。実施を終えた２学期には、受入事業所からの評価表をもとに担任との２者面談、職場体験先の評価をもとに学校生活の在り方にフードバックする取り組みである。さらに文化祭では、全校生徒に向けた職場体験報告、２月の弁論大会では、「職場体験」をテーマに体験から学んだことを全校生徒に伝えていく。

３．社会で求められる資質・能力こそ、教科指導で身につける

職場体験等の体験活動はキャリア教育における極めて重要な要素となる。同時に重要なことは、社会で求められる力を教科指導においても並行して指導することである。教科の授業において、意図的に議論する場面を設定したり、学校図書館で授業を実施し、書籍から必要な情報を見つけ出し、活用する情報収集能力を育成したりすることも極めて重要なキャリア教育である。その際、タブレットPCを活用したICT機器活用授業も社会人として求められる情報活用能力を高める重要な要素となる。

キャリア教育を根付かせるための今後の課題･･･体験活動と教科指導はキャリア教育の２本柱

１．キャリア教育の視点で行う授業改善の課題

各教科、領域の指導においてキャリア教育の視点、つまり社会で求められる能力の育成という視点を授業に取り込むことで授業の質を大きく変えることができる。主体的・会話的で深い学びは、教科授業そのもので社会人として求められる資質・能力を育成することになる。特に授業では、キャリア教育の４能力①「人間関係形成･社会形成能力」②「自己理解・自己管理能力」③「課題対応能力」 ④「キャリアプランニング能力」を育成するため、様々な手法が考えられる。協働的問題解決能力の視点、ＩＣＴ機器活用授業の視点、学校図書館活用授業視点、外部人材活用授業の視点を取り入れながら、授業改善を実践していく。学校生活の大半を占める教科指導の中でこそ、社会人として求められる能力の育成が必要である。日本では、大学入試制度の改革も目前で、知識量のみならず、スキルがいかに身についているのかを問われる時代に入ってきている。

２．学校図書館の学習センター化、情報センター化、ICT教育の促進が課題

学校図書館の学習センター化、情報センター化を積極的に進め必要がある。学校図書館授業、コラボレーション授業（学校司書との協働授業）等を実施し、言語能力の育成を行う。これまで授業という視点では、あまり活用されてこなかった学校図書館を教育活動の場、教室として位置づけ思考の基礎作りを行う。当然、これまである学校図書館をそのまま使用するというのではなく、郷土資料、課題別スクラップ、新聞コーナー・・・等、情報センター、学習センターとしての改善は不可欠となる。特に書籍とタブレットPCを併用する形の授業も実施できる。社会に出て求められる情報収集力、分析力を学校図書館活用で培う。既存の施設、設備をキャリア教育の視点で見直していく。

３．地域を生かした外部人材の活用範囲拡大の課題

社会の実物、本物、また、世の中の実態、厳しさを子どもたちに伝え、学校生活での学びや進路選択への気付きを与える機会をつくることは、学校や家庭だけでなく、地域・社会・産業界が連携して担うべき役割ともいえる。地域、保護者の方々の人材を生かすため、学校として組織的な人材発掘や人材バンク的な学校独自の財産を充実させる。そのためには、日常的に地域行事や地域防災活動へ教職員や生徒が積極的に関わり、学校と地域との交流を積み上げることで人間関係を構築し、そのことが体験行事拡大へとつながっていく。

４．ネットワークを生かすキャリア教育推進の課題

義務教育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推進において専門家の導入はまだまだ未知数の部分が多い。また、教育活動に外部人材を入れることへの抵抗感もあり、なかなか浸透しない傾向がある。ゲストティ何もかも一任するのではなく、学校側の受け入れ体制を見直し、学校主導で教育活動に取り込むことが大前提となる。キャリア教育コーディネーター（経産省）、キャリアコンサルタント（厚労省）等の専門的な能力を有する人材と協働する等、社会全体で義務教育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推進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が求められる。今後、キャリア教育を大きく前進させる要因となり得る。

５．小中一貫学習プログラムの実践と中高連携の課題

小中学校の一貫したキャリア教育学習プログラムに基づく実践があってこそ義務教育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が前進する。同時に小中教職員のコアとなる人材のつながり、連携こそが鍵となる。義務教育段階の系統的な指導計画、協働の取り組みがキャリア教育を大きく前進させる。さらにこれまでイベント的な交流はあったものの、計画的な指導計画に基づく、体験活動、教科指導が何より必要である。さらに中高でのキャリア教育の連携はあまり行われてこなかった。今後、校種を超えた教科指導方法の連携、合同行事での協働という形が構築されていけばキャリア教育が一層加速されていく。

「커리어의 실천과 그 과제」

~배움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커리어 교육의 추진과 그 과제~

시미즈 타카히코(Shimizu Takahiko, 아라카와 구립 제3중학교 교장)

커리어 교육의 전체상 (학교 경영 방침으로 둔다)

현재의 일본 공립중학교는 교장이 경영 비전을 제시하고 선택 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교장의 발상, 학교 경영 전략의 구체적 방안이야말로 학교 조직을 크게 변화시킨다.

현재 사회의 니트, 프리터 문제, 이직율 증가, 불황의 영향으로 취직 전선 등이 어려운 현실을 보면 초등학교의 의무교육 단계에서부터 변화하는 시대를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들 육성하는 커리어 교육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래를 내다보는 힘, 사회 생활에 크게 대응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교 경영 방침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을 커리어 교육의 시점에서 실천한다'고 하고 있다. 본 교에서는 커리어 교육을 '전교육 활동을 통한 사회인, 직업인, 지역인을 육성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관리직의 지도력이 큰 과제이다.

1. 외부 인재와 '연결 되어 있다는 감정'을 살린 커리어 교육의 실천 예

커리어 교육의 추진을 위해 지역 인재의 활용을 비롯하여 지역 소재를 살린 움직임 등을 많이 실천하고 있다. 각각의 시도에는 지역 사회, 지역 인재와 연계된 협력 관계가 불가결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이 공통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을 둘러싼 구체적이고 계통성이 있는 시도들은 학생들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교직원의 의식 변화로도 이어진다. 더욱이 지역 인재와의 협동은 자연과 지역 안에서 학교를 크게 의식하게 만들어 단순한 교육 참가에서 교육 지원이라는 형태로 변용되어 간다.

(1) 교내 헬로우 워크

'교내 헬로우 워크'는 30 업종의 다양한 강사를 초청하여 3 강좌를 수강한다. 강사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 중학생인 지금 무엇을 배워둘 것인지 지금 익혀둘 필요가 있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장래에 살아가는 법을 이미지화 하고 동시에 현재의 생활을 재고해 보는 것으로 이어진다.

(2) 5일간의 직장 체험 "근로 유학"

본교에서는 5일 동안 직장 체험을 시작한지 13년째를 맞이했다. 직장 체험처는 진로 지도 주임을 중심으로 관리직, 학년과 상관없이 전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또한 행정 기관으로의 소개, 커리어 교육의 코디네이터 지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직장 체험의 목적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바람직한 사회성, 근로관, 직업관을 육성하는 것이며 다음의 세가지를 지도의 큰 골자로 삼아 실시했다. ①직장 체험을 통한 학교 생활을 재고 ②장래 자신이 가지고 싶은 직업에 대한 의식을 향상 ③일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성을 몸에 기르고 근로의 즐거움을 알게 됨 ④직장에서의 근로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법 등을 배우는 것이다.

2. 커리어 교육 추진을 위한 방책, 학교 행사에 연관성을 지니게 하는 것의 중요성

특히 직장 체험 등의 행사는 해당 학년의 단발적인 학년 행사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본교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을 커리어 교육의 시점에서 재고하여 각 행사에 관련성을 가질 수 있게 실천하고 있다. 직장 체험을 일례로 설명하자면 6월에는 사전 준비로 직장 체험 교류회를 실시하여 3학년생이 전 년도의 체험을 2학년생에게 전달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매너 강좌를 실시한다. 실시를 끝낸 2학기에는 수용하기로 한 사업소에서 평가표를 받아 담임과 양자 면담, 직장 체험처의 평가를 가지고 학교 생활의 방향에 피드백을 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문화제에서는 전교 학생에게 직장 체험 보고, 2월의 변론대회에서는 '직장 체험'을 테마로 체험에서 배운 것을 전교생에게 전달한다.

3.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 능력이야 말로 교과 지도로 익힌다.

직장 체험 등의 체험 활동은 커리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힘을 교과 지도에서도 병행하여 지도하는 것이다. 교과 수업에서 의도적으로 논의 할 장면을 만들거나 학교 도서관에서 수업을 실시하여 서적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견하게 하고 활용하는 정보 수집 능력을 육성시키는 것 등도 매우 중요한 커리어 교육이다. 그 때 태블릿 PC를 활용한 ICT 기기 활용 수업도 사회인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는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커리어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한 향후의 과제들… 체험 활동과 교과 지도는 커리어 교육의 양 축

1. 커리어 교육의 시점에서 필요한 수업 개선 과제

각 교과, 영역의 지도에서 커리어 교육의 시점, 즉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의 육성이라는 시점을 수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업의 질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주체적, 회화적으로 깊이 배우는 것은 교과 수업 그 자체로 사회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 능력의 육성으로 연결된다. 특히 수업에서는 커리어 교육의 4능력 ①'인간관계 형성, 사회 형성 능력 ② 자기 이해, 자기 관리 능력 ③과제 대응 능력 ④커리어 플래닝 능력을 육성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협동적 문제 해결 능력 시점, ICT기기 활용 수업 시점,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시점, 외부 인재 활용 수업 시점을 도입하면서 수업 개선을 실천해 나간다. 학교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과 지도에서야 말로 사회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대학 입시제도의 개혁도 눈앞에 두고 있어 지식의 양 뿐만이 아니라 스킬을 어떻게 익힐 수 있는지가 요구되는 시대로 들어섰다.

2. 학교 도서관의 학습센터화, 정보센터화, ICT 교육 촉진이 과제

학교 도서관의 학습센터화, 정보센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교 도서관 수업, 콜라보레이션 수업 (학교 사서와의 협동 수업)등을 실시하여 언어 능력 육성을 도모한다. 지금까지 수업이라는 시점에서는 별로 활용되지 않았던 학교 도서관을 교육 활동의 장, 교실로 규정하여 사고의 기초를 만든다. 당연히 지금까지의 모습 그대로의 학교 도서관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 자료, 과제별 스크랩, 신문 코너 등 정보센터, 학습센터로서의 개선은 불가결 하다. 특히 서적과 태블릿 PC를 병용하는 형태로 수업도 실시 할 수 있다.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정보 수집력, 분석력을 학교 도서관 활용으로 배양한다. 기존의 시설, 설비를 커리어 교육의 시점에서 재고해간다.

3. 지역을 활용한 외부 인재 활용 범위 확대 과제

사회의 실물, 본질, 또는 세상의 실태, 엄격함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학교 생활에서의 배움과 진로 선택을 깨닫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은 학교와 가정 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산업계가 연계하여 담당해야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보호자 분들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 차원의 조직적인 인재 발굴과 인재 뱅크적인 학교의 독자적 재

산을 확충해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지역 행사와 지역 방재 활동에 교직원과 학생이 적극적으로 연관되어 학교와 지역과의 교류를 쌓으며 인간관계를 구축한다면 그것이 체험 행사 확대로 연결되어 갈 것이다.

4. 네트워크를 활용한 커리어 교육 추진 과제

의무교육에서의 커리어 교육추진에서 전문가 도입은 아직 미지수인 부분이 많다. 또한 교육 활동에 외부 인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도 있어 제대로 침투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게스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의 수용 체제를 재고하고 학교 주도로 교육 활동에 나서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 커리어 교육 코디네이터 (경제산업성), 커리어 컨설턴트 (후생성) 등의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인재와 협동하는 등 사회 전체가 의무교육에서 커리어 추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커리어 교육을 크게 진전 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5. 초 중 일관 학습 프로그램의 실천과 중고 연대 과제

초 중 학교의 일관된 커리어 교육 학습 프로그램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의무교육의 커리어 교육이 진전된다. 동시에 초 중 교직원이 중심이 된 인재와의 연결 연대가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의무교육 단계의 계통적인 지도 계획, 협동의 지도 계획에 따라 체험 활동, 교과 지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게다가 중 고교에서의 커리어 교육의 연대는 별로 이루지고 있지 않다. 향후 학교의 종류를 넘어선 교과 지도 방법 연대, 합동 행사에서의 협동이라는 형태가 구축되어 가면 커리어 교육이 한층 가속화 될 것이다.

Mikami Masaki(Publich High School in Aomori Prefecture)

「日本の専門学校　―　職業に関連する“学び”と“教育”システム」

三上　昌樹(Mikami Masaki)

【“学び”と“教育”に関する時系列的な整理事例……各種学校と専門学校】

明治期	戦後期	1975 年	今後の「構想」
1879 年教育令 「各種の学校」	1947 年学校教育法 「各種学校」法文化 →「学校」の定義と「学校」からの各種学校除外	専修学校制度創設 →「各種学校」「専修学校」の併存	職業専門大学構想 →高等教育での職業教育

【参考】　**①専修学校制度の概要**

専修学校
- 高等課程（中学校卒者を対象）
- 一般課程（学歴を問わない）
- 専門課程（高等学校卒者を対象・「専門学校」）　※専修学校中約 80%が専門課程）

②高校卒者の進路概要（2016『学校基本調査』）

大学・短大進学率（現役）５４．８％
専門学校（※）進学率（現役）１６．３％
就職者は約１７％

③日本の学校制度の概要（数字は標準的な入学年齢、斜字体は義務教育、□は法制上の「学校」）

（初等教育段階）	（中等教育段階）		（高等教育段階）	
幼稚園（4）	*小学校（6）　中学校（13）*	高等学校(16)	大学（19～）・短期大学	大学院（23～）

専修学校高等課程（16）専修学校専門課程（19）
専修学校一般課程（不定）
各種学校（不定）

【本レポートの立場】
“キャリアの実践”を具体化する「教育機関」としての「専門学校」が抱える諸問題という視角から

A「職業教育」と「学校教育」の「折り合い」

①2011年　中教審答申「今後の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職業教育の在り方について」
P6　“企業の動向”などに見える「OJT」の要素の「減少と削減」傾向の指摘
たとえば 2016 年　中教審答申「個人の能力と可能性を開花させ、全員参加によって課題解決社会を実現するための教育の多様性と質保証の在り方について」
P4～5　“企業の動向”、および P28「専門職（業）大学」の名称の提案
……人材育成の意義について（誰にとっての「人材」なのか？）

②企業に人材育成の余力がないことを理由に、企業でなければできないような実質的な育成の部分までも「学校教育」に負担させ、責任転化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ex.「学歴主義」「学校歴主義」「選抜性の高い大学からの採用重視」などの傾向は一定の合理的な人材確保の一手段としての根拠を持つ。しかし、「企業の事情」が効率しか評価しない場合や、企業の「本来的に背負うべきコスト」あるいは「自己責任」であるはずの部分までも「カット」することは、企業がただの利益追従集団に堕してしまい、人材育成の社会的意義を果たすことを放棄した集団になり得る。企業が為すべき OJT の一部を学校に“肩代わり”させ、たとえば経済団体の支援を得た「政権」によっては、そこで計画実施される “キャリア教育”には、「学校教育」と「職業教育」の定立や、構造的な配置など期待できないことになる可能性がある。キャリア意識形成や、就業への動機付けを有効に実施するためには産業・企業に適合させる人材育成は、個々の企業や産業界全体で行うべきものである。

また、「学校」には“多様な職種の企業に適した人材育成”を行える教育資源はない。

（人的資源について教員の“多彩な職業経験”に期待できないことはすでに上記「答申」に指摘がある）

③高等教育が国際標準を充足しつつ、なお「職業」認識を充足し、各自のキャリアを構成するために必要な「力」を、現状の「職業」概念や、職域認識から具体化させることは、それ自体現実的ではない。それが可能なのであればすでに行われているはずである。

B 専門学校がかかえる問題点

①「文化・教養分野」の関係分野への就職率の低さ …… 各種学校以来の多彩な分野の反映

②職業と直結し、ただちにその職に就けるかのような「誇大宣伝」、安易な“キャリア”“夢”の扇動、その一方で「ASUC」職業などと称される概念が提示されるなど、分析は進んでいるが、改善への具体策が示されることはほとんどない。

③たとえば専門学校「学科改編」の状況 …… 「文化・教養分野」での改編の「頻繁さ」には学校経営上の事情が優先している？ →「カタカナ」職業名、「カタカナ」学科名の「乱造」

C「専修学校制度」(「専門学校」を内包)の歴史的背景について

…制度創設 40 年を経て、専修学校制度は所期の設置意図と目標を貫徹したか？

①各種学校の「一条校化運動」から始まった昇格要求…1947 年、「学校」から除外された各種学校

②各種学校の多様さゆえの制度化の困難

③構成された 3 種類の専修学校は、内容的には従前の各種学校をほぼ踏襲するもの。ここで「排除」されたのは「小規模各種学校」が中心。各種学校が本来持っていた“多様な学び需要”への機能を専修学校(制度)は引きついだのだろうか。それはただの小規模各種学校の「淘汰」に終わったのではないか。その検証は十分でない。

④「専門職業大学」なども含め、新しい制度設計の根拠になるべき検証が決定的に不足している。

（了）

「 일본의 전문학교 – 직업과 관련된 “배움”과 “교육” 시스템 」

미카미 마사키 (Mikami Masaki)

【“배움”과“교육”에 관한 시대별 정리 사례 .....각종 학교와 전문학교】

메이지 — 전후 — 1975 년 — 향후「구상」

1879 년교육령 「각종학교」

1947 년학교교육법 「각종학교」법문화 →「학교」의 정의와「학교」에서의 각종학교 제외

전수학교제도창설 →「각종학교」「전수학교」병존

직업전문대학구상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참고】 ①전수학교 제도 개요

전수학교
- 고등과정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
- 일반과정 (학력 상관 없음)
- 전문과정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 ・「전문학교」) ※전수학교 중 약 80%가 전문과정)

②고졸자의 진로개요 (2016『학교 기본 조사』)

대학・단기대학 진학률 (현역) ５４．８％

전문학교 (※) 진학률 (현역) １６．３％

취직자는 약 １７％

③일본의 학교제도개요 (숫자는 표준적인 입학 연령, 기울어진 것은 의무교육 □는 법제상「학교」)

(초등교육단계) (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유치원 (4) | *초등학교 (6) 중학교 (13)* | 고등학교(16) | 대학 (19～) 단기대학 | 대학원 (23～)

전수학교고등과정 (16) 전수학교전문과정 (19)

전수학교일반과정 (미정)

각종학교 (미정)

【본 레포트의 입장】

“커리어 실천”을 구체화 한‘교육 기관’으로서의 ‘전문학교’가 안고있는 여러 문제 라는 시각에서

A「직업교육」과「학교교육」의「타협」

①2011년 중교심답신「향후 학교에서의 커리어 교육 · 직업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P6 “기업의 동향”등으로 보는「OJT」의 요소「감소와 삭감」경향 지적

가령 2016년 중교심답신「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꽃피우고 전원 참가로 과제 해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보증의 방향성」

P4～5 “기업의 동향”및 P28「전문직 (업) 대학」의 명칭 제안

……인재 육성의 의의에 대하여 (어떤이에게「인재)인가？)

②기업에 인재육성의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실질적인 육성 부분까지도 「학교 교육」으로 부담하게 해, 책임전가 하려는 것이 아닌지.

ex.'학력주의' '학벌주의''선발이 잘되는 대학에서의 채용 중시' 등의 경향은 일정한 합리적인 인재 확보의 한 수단으로서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이 효율 밖에 평가 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본래 책임져야 할 비용'또는 '자기 책임'이어야 할 부분까지도 '커트'하는 것은 기업이 단순한 이익 추구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이며 인재 육성의 사회적 의의를 다 하는 것을 방치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 기업이 해야 할 OJT의 일부를 학교에"전가"시키고 가령 경제 단체의 지원을 받은 '정권'이라면 계획 실시된 "커리어 교육"에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의 정립, 구조적인 배치 등 기대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커리어 의욕 형성과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유효하게 하려면 산업, 기업에 맞춘 인재 육성은 각각의 기업과 산업계 전체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에는 "다양한 직종에 적합한 인재 육성"을 실행할 교육 자원은 없다. (인적 자원에 대한 교사의 "다양한 직종 경험"에 기대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상기 '답신'에서 지적이 나와있다.)
③고등교육이 국제 표준을 충족하면서 '직업' 의식을 충족하고 각자 커리어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현황의 직업 개념과 직업 영역의 인식에서 구체와 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B 전문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
① '문화 · 교육분야'의 관계 분야로의 취업률 저하 …… 각종학교 이후의 다양한 분야 반영
② 직업과 직결되고 즉시 그 직업에 활용될 수 있는 것처럼 '과대 선전' 안이한 '커리어', '꿈'을 선동
한편으로는「ASUC」직업 등으로 불리는 개념이 제시되는 등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구체 방안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다.
③ 예를 들어 전문학교 '학교 개편'의 상황 ……'문화 · 교육분야'에서의 개편 '빈번'에는 학교 경영상의 사정이 우선시 된다? →「외래어」 직업명,「외래어」학과명의 '남용'

C「전수학교제도」(「전문학교)내포)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제도 창설 40년을 거쳐 전수학교제도는 소기의 설치 의도와 목표가 관철되었는가?
① 각종학교의 「일조교화 운동」에서 시작된 승격 요구…1947년「학교」에서 제외된 각종 학교
② 각종학교의 다양성 때문에 제도화 곤란
③ 구성된3종류의 전수학교는 내용적으로는 전제의 각종 학교를 거의 답습하는 것. 여기서 「배제」된 것은 「소규모 각종학교」가 중심. 각종학교가 본래 가지고 있던 "다양한 배움의 수요"에 대한 기능을 전수학교(제도)는 잇게 된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소규모 각종학교의 '도태'로 끝나버린 것은 아닐까. 그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
④「전문직업대학」등도 포함하여 새로운 제도 설계의 근거가 될 검증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
(끝)

Kamita Kiyo(Hokkaido Shihoro Senior High School)

食品製造工場で、地域で、キャリアを追い求める高校生

北海道士幌高等学校
紙　田　　清

初めまして。私は北海道にある農業高校、士幌(しほろ)高校教諭の紙田清(かみたきよ)と申します。士幌町は北海道で最も農業が盛んな地域の一つである十勝(とかち)にある町で、私の勤める士幌高校は士幌町の中心部からやや離れた場所にあります。士幌高校の規模は決して大きくはないですが、生徒は農業を学ぶのに最も適した地域で、農業や食品製造を専門とする先生達のもと、日々活動をしています。

生徒はそれぞれ専攻班と呼ばれる研究班に属し、それぞれのテーマに基づき活動をしています。士幌高校では、農産加工班、環境専攻班、肉加工専攻班、畜産専攻班、地域資源専攻班、畑作専攻班、草花専攻班、有機農業専攻班、野菜専攻班、そして乳加工専攻班という１０の班があります。私は本日、乳加工専攻班の活動を少し詳しく紹介し、キャリアの実践という視点より、この班で学ぶ生徒達がどのような商品を作っているのか、どのような活動が好きか、また、班のどのような活動が自分のキャリアに結びついていると感じているのか、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専攻班活動の様子

乳加工専攻班は高校の牛舎で搾乳された生乳を加工し、商品化している専攻班です。ごく一般的な乳製品、チーズ、ヨーグルト、アイスクリームに加え、最近では「ヌプカの雪解け」というデザートを開発し、販売をするまでに至りました。「ヌプカの雪解け」とは、水切りをしたヨーグルトとクリームチーズをベースにしたデザートで、上部にはハスカップやシーベリー（いずれも北海道特産の小果実）のソースが乗ったものです。（こちらのデザートの味を詳細に伝えられたら・・・と思うのですが、私自身、まだ食べたことはありません。生徒はとても美味しいと言っています。）

乳加工専攻班ヌプカの雪解け製造の様子

「専攻班の中で一番好きな活動は？」との質問に、乳加工専攻班の半数近くの生徒がこのヌプカの

雪解けを製造している時と答えました。実際に製造をしている所を見ると、担当の先生は後方で生徒を見守り、必要な時に声かけをする程度で作業は全て生徒が行なっていました。生徒はそれぞれの役割をきちんと認識しており、流れ作業は実にスムーズでした。この一件簡単そうに見える作業風景は、専攻班が試行錯誤を繰り返し、年月をかけて構築した一連の仕事の流れであるように感じます。

何かが好き、という力は偉大です。それは、働く意欲にも繋がり、生きる力にもなります。それは自然発生的なことであり、決して強制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士幌高校の乳加工専攻班で私は、「働くことが好き」を育む教育環境を感じ取りました。

商品の製造の他に、専攻班の重要な活動に販売会があります。

販売会では地域に赴き、一般市民に高校で生産・製造した商品を売ります。乳加工専攻班では、この販売会の仕事が自分の進路に結びついていると感じる生徒が少なくありません。それもそのはず、販売会での商品の陳列、接客や会計は、ものを作って売る仕事には欠かすことのできないスキルだからです。社会では必須と言えるスキルを、学校という場で学べることの幸せと言ったらないでしょう。

本校の卒業生は士幌町の企業や農協（農業協同組合）で毎年就職をしますが、それを意識してか、「高校で作ったものを士幌町内で販売をしている時、それが自分のキャリアに結びついていると感じる。」とアンケート調査で答えた生徒もいました。

以上、キャリアの実践という視点から、北海道士幌高等学校の乳加工専攻班の活動の様子や生徒の声を紹介いたしました。実際に生徒が就職をした時、学校という場がある意味家庭のような、優しい場所であったことに気が付くでしょう。失敗をしても、先生たちは温かく見守ってくれますが、社会では必ずしもそうではありません。学校と社会では環境がかなり違います。時として厳しすぎ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世の中で、確実に即戦力となり身を助けるもの、つまり仕事のスキルを身につける場が、本校にはあります。１５０人の生徒がいれば１５０通りのキャリア設計があることになりますが、本校の専攻班で生徒が体得したものは、それぞれの形でそれぞれのキャリアの役に立っていると、私は自負しています。

（余談…時間があれば、以下の生徒の質問を韓国の方々にさせていただけますか。）

1. 韓国に農業高校はありますか。
2. 韓国で流行っているスイーツは何ですか。
3. 韓国にはどのような乳製品がありますか（韓国風の乳製品はありますか）。
4. 日本の食べ物で好きなものは何ですか。
5. 韓国の高校生はどのような遊びをしますか。

식품제조 공장에서, 지역에서, 커리어를 추구하는 고등학생

홋카이도 시호로 고등학교
카미타 키요

안녕하세요. 저는 홋카이도에 있는 농업고교 시호로 고등학교의 카미타 키요입니다. 시호로쵸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농업이 번성한 지역중 한 곳인 토카치에 있으며 제가 근무하는 시호로 고교는 시호로쵸의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시호로 고등학교의 규모는 결코 크지는 않으나 학생들은 농업을 배우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농업과 식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 하에서 매일 활동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전공반으로 불리는 연구반에 속해있으며 각각의 테마에 따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호로 고등학교에서는 농산가공반, 환경전공반, 육가공전공반, 축산전공반, 지역자원전공반, 밭농사전공반, 화초전공반, 유기농업전공반, 야채전공반, 그리고 유가공 전공반이라는 10개의 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가공 전공반의 활동을 조금 자세하게 소개하며 커리어의 실천이라는 시점에서 이 반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상품을 만들고 있는지 어떠한 활동을 좋아하는지 또 반의 어떠한 활동이 자신의 커리어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등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전공반 활동 모습>

유가공 전공반은 고교의 우사에서 착유된 우유를 가공하여 상품화 하고 있는 전공반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유제품,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에 최근에는 '누프카의 눈녹임'이라는 디저트를 개발하여 판매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누프카의 눈녹임'이란 수분을 제거한 요구르트와 크림 치즈를 베이스로 한 디저트로 위에는 하스컵이나 씨베리(두 가지 모두 홋카이도에서만 자라는 작은 과일) 소스가 놀라간 것입니다. (이 디저트의 맛을 자세히 전달드리고 싶지만, 저도 아직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맛있다고 하더군요.)

<유가공 전공반 누프카의 눈녹임 제조 모습>

‘전공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이라는 질문에 유가공 전공반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 누프카의 눈녹임을 제조하고 있을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제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담당 선생님은 뒤에서 학생들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말을 거는 정도로 작업은 모두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작업은 정말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언뜻 간단하게 보이는 작업 풍경은 전공반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들여 구축한 일련의 일의 흐름같이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하는 의욕으로 연결되며 살아가는 힘으로도 연결됩니다. 그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결코 강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호로 고교의 유가공 전공반에서 저는 ‘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육성하는 교육 환경을 느꼈습니다.

상품의 제조 외에 전공반의 중요한 활동에는 판매회가 있습니다.

판매회에서는 지역으로 나아가 일반 시민에게 고교에서 생산, 제조 한 상품을 팝니다. 유가공 전공반에서는 이 판매회의 일이 자신의 진로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판매회에서의 상품의 진열, 접객, 회계 등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일에는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을 학교라는 곳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본교의 졸업생은 시호로쵸의 기업과 농협 (농업협동조합)에 매년 취직을 하는데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고교에서 만든 것을 시호로쵸 내에서 판매를 할 때 그것이 자신의 커리어에 연결된다고 느낀다’고 설문조사에서 대답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커리어의 실천이라는 시점에서 홋카이도 시호로 고등학교의 유가공 전공반의 활동 모습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소개 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취직을 했을 때 학교라는 장소가 어떤 의미로는 가정과 같은 포근한 장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해도 선생님들은 따뜻하게 바라보아 주지만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환경이 상당히 다릅니다. 때로는 너무 엄격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사회 속에서 제대로 투입 가능한 즉전력을 익히는 것, 즉 일의 기술을 익히는 장소가 본교에는 있습니다. 150명의 학생이 있으면 150개의 커리어 설계가 있는 것이 되는데 본교의 전공반에서 학생들이 체득한 것은 각각의 형태로 각각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시간이 있으면 이하의 학생들의 질문을 한국 분들께 드려도 될까요.)

1. 한국에 농업고등학교가 있습니까?
2.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디저트는 무엇입니까?
3. 한국에서는 어떠한 유제품이 있습니까? (한국의 유제품은 있습니까?)
4. 일본의 음식 중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5. 한국의 고등학생은 어떻게 놉니까?

Okabe Atsushi(Sapporo Otani University)

社会的包摂を目指すキャリア教育の可能性に関する研究

札幌大谷大学・University of Calgary・ARACD 事務局長
岡部　敦（Atsushi Okabe, PhD.）

はじめに

近年、グローバル経済および新自由主義的政策の進展により、労働条件の悪化や不安定就労といった課題が生じている。学校教育は、これらの課題に関連して、子どもの貧困、不登校、高校中退といった問題への対処を迫られている。2014 年に閣議決定された「子どもの貧困対策に関する大綱」では、学校の果たす役割の重要性が指摘されている。中でも、高等学校は中学からの進学率が 98%近くに達している現状において、学校から仕事および中等後教育機関への移行の最終段階にあたり、若者の自立を支援する場としての役割を担っている。このラウンドテーブルでは、高校中退などの問題に高校教育としてどのように対処することができ、社会から排除される可能性のある若者にどのような支援を提供できるのかについて検討し、その文脈においてキャリア教育がどんな役割を持つべきなのかについて考える機会としたい。

１　日本の高校中退問題に関する実態

日本の高校における高校中途退学者の割合は、平均 1.7%（平成 26 年度）とされ、他の先進国の数値と比較すると格段に低い値となっている。しかし、この数値は学校の種別や学校ごとに大きく異なり、定時制高校で 11%を越え、全日制の専門高校では 1.6%、普通科で 1.0%となっている。学校別のデータは公表されていないが、全生徒数の 1%に満たない学校から、半数近くの入学者が卒業前に退学している高校もある。(乾ほか 2012）は、この中退率の算出方法の問題点を指摘し、過去 20 年ほどの実際の中退率は平均して 6ー8%程度になると述べている。また、主な中退の理由として、文部科学省は①学校不適応・学業不適応②学業不振③進路変更をあげている。しかし、学校現場の実態を考えた場合、これらの項目は複雑に関係しあっており、分類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青砥 2009)は、格差社会における貧困の問題が直接的・間接的に中退問題に関係してい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こうした問題は、貧困、家庭環境などの複合的な課題と高校の序列化の問題とが関わり、教育の機会均等という視点からみて、無視できない問題であるととらえる。

２　高校中退問題への対応

比較事例として、筆者が研究対象としているカナダ・アルバータ州での取り組みを取り上げる。高校中退問題は、アルバータ州においても深刻な課題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高校に入学してから３年後に卒業できる者の割合は、2014 年度で 76.2%であり、５年で卒業できる者の割合は、82.5%となっている。その主な理由は、アルバータ教育省によれば、学力不足、社会経済的な理由、貧困などと報告されており、実際にはこれらの理由が複合的に影響している。ある高校教員は、信頼できる大人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欠如と自分の進路選択と高校教育の意味を見出すのが困難であることを中退理由にあげている。

アルバータ州における中退問題は、これまでも取り上げられてきている。2012年度に発表されたHigh School Redesignでは、学校教育システムの柔軟化・個別化を中心とした改革プログラムが提示された。その一つがカーネギー・ユニット(Carnegie Unit)の廃止である。高校での修得単位は、教室での授業時間数によって決められるが、この規定を全て廃し、授業時間が0であっても単位修得が認められるという仕組みが導入された。このシステムにかかわる具体的な取り組みは、ラウンドテーブルで紹介することとする。

日本における中退問題への対応については、内閣府や文部科学省などがその実態把握のための調査を行なっているが、依然として学校単位および個々の教員の努力に負うところが大きい。一つの制度的な課題として、Country Reportでも取り上げられた高校教育と卒業後の進路との整合性(Relevance)の課題がある。もう一つは、経済格差や貧困などの社会経済的な状況に起因する学力不足や学習意欲の低下、精神的な抑うつ状態などの課題があげられている。

一つ目の制度的な課題については、高校での学習と卒業後の進路とRelevanceという視点から職業教育の有用性が指摘されているところであるが、普通科の高校で職業に関わるカリキュラムを導入するという動きはまだ活発ではない。しかし、キャリア教育の必要性が叫ばれた1999年から、生徒が実際の職場に出かけて職業を体験したり、学校に社会人を招いて講演会を行うなどの取り組みが行われており、授業以外の特別な活動としての取り組みはかなり普及している。もう一つの課題に対しては、普通科の高校の中で、いわゆる生徒指導困難校と言われる高校において、悩みを抱えていたり、精神的に不安定であったり、対人関係に何か課題を抱えている生徒の居場所を確保するという取り組みが進められている。例えば、ある高校では毎週1回図書館でカフェを開催し、地域のボランティアやNPOなどの職員が来校し、飲み物や食べ物などを提供し、音楽をかけたりすることで生徒の興味を引きながら、悩み相談の場をつくる活動を行なっている。こうした居場所作りは、全国に広がっており、困難を抱える生徒が高校を中退する前に、なんとかして課題を解決できる方向へと導こうとすることを目的にしている。

3　まとめ

高校中退の問題は、日本においても韓国においても、また筆者が研究対象とするカナダにおいても深刻な課題として捉えられており。その理由は、若者個人の抱える内面的な課題ばかりでなく、若者を取り巻く複数の社会的要因が複雑に絡んでいる。また、中退問題を放置しておくことで、生活保護や就労支援などの将来の社会福祉的な負担となり、さらには深刻な少子化問題を抱える日本と韓国においては、社会を支える若者の社会的・職業的自立をどう実現するのかという問題につながる。解決にむけた一つの糸口として、日本およびカナダでの実践から、高校教育カリキュラムにおけるRelevanceの問題と若者の居場所作りであると考える。また、これまでの筆者による韓国の高校訪問からも、同じような取り組みを見る機会を得た。このラウンドテーブルにおいて、日本と韓国での取り組みについて交流する機会としたい。

사회적 포섭을 지향하는 커리어 교육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삿포로 오타니 대학 University of Calgary · ARACD 사무국장
오카베 아츠시 (Atsushi Okabe, PhD.)

들어가면서

최근 글로벌 경제 및 신자유주의적 정책 진전으로 인해 노동조건의 악화와 불안정한 노동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학교 교육은 이러한 과제와 관련하여 어린이 빈곤, 등교 거부, 고등학교 중퇴 등의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4년에 각의 결정된 '어린이 빈곤 대책에 관한 대강'에서는 학교에 미치는 역할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의 진학률이 98%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교에서부터 일과 중학교 이후의 교육기관으로 이행하는 최종단계에 있어 젊은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이 라운드 테이블은 고등학교 중퇴 등의 문제에 고교 교육이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지, 사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문맥에서 커리어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1. 일본의 고교 중퇴 문제에 관한 실태

일본 고등학교에서 고교중퇴자의 비율은 평균 1.7%(2014년도)로 다른 선진국의 수치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학교의 종별, 학교별로 크게 다르며 정시제 고교에서는 11%가 넘으며 전일제 전문 고교에서는 1.6%, 보통과에서는 1.0%였다. 학교별 데이터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전 학생수의 1% 미만의 학교에서 절반 가까운 입학자가 졸업 전에 퇴학하는 고교도 있다. (이누이 외 2012)는 이 중퇴율의 산출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과거 20년 정도의 실제 중퇴율은 평균적으로 6~8%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된 중퇴 이유로 문부과학성은 ①학교 부적응, 학업 부적응, ②학업 부진, ③진로 변경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실태를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항목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고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아토오 2009)는 격차사회에서의 빈곤의 문제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중퇴 문제에 관련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는 빈곤, 가정환경 등의 복합적인 과제와 고교의 서열화 문제 등과 관련이 있으며 교육의 기회 균등 이란 시점에서 볼 때 무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2. 고교 중퇴 문제에 대한 대응

비교 사례로 필자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캐나다 앨버트 주의 시도들을 거론한다. 고교 중퇴 문제는 앨버트 주에서도 심각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고교에 입학해서 3년 후에 졸업 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14년도 76.2%로 5년만에 졸업 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82.5%이다. 알버트 교육청에 따르면 그 주된 이유는 학력 부족, 사회 경제적 이유, 빈곤 등이 보고 되며 실제로는 이러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 고교 교사는 신용 할 수 있는 어른과의 커뮤니케이션 결여와 자신의 진로 선택과 고교 교육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중퇴 이유로 꼽는다.

앨버트 주의 중퇴 문제는 지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2012년도에 발표 된 High School Redesign 에서는 학교 교육 시스템의 유연화, 개별화를 중심으로 한 개혁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그 중 한가지가 카네기 유닛 (Carnegie Unit)의 폐지이다. 고교에서의 취득 단위는 교실에서의 수업 시간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수업 시간이 0이라도 단위 취득이 인정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도들은 라운드 테이블에서 소개 하기로 한다.

일본에서의 중퇴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는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등이 그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학교 단위 및 개개의 교사의 노력 여하에 기대하는 경우가 크다. 하나의 제도적인 과제로 Country Report에서도 거론된 고교 교육과 졸업 후의 진로와의 정합성 (Relevance)의 과제가 있다. 또 하나는 경제 격차와 빈곤 등의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에서 기인된 학력 부족과 학습 의욕 저하, 정신적인 우울 상태 등의 과제를 들 수 있다.

첫번째 제도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고교에서의 학습과 졸업 후의 진로와 Relevance라는 시점에서 직업 교육의 유용성이 지적된다는 것인데 보통과의 고교에서 직업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커리어 교육의 필요성을 부르짖던 1999년부터 학생들이 실제 직장에 나가 직업을 체험하거나 학교에 사회인을 초대하여 강연회를 하는 등의 움직임이 이루어져왔고 수업 이외의 특별 활동으로 많이 시도 되어 보급이 꽤 진전되었다. 또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는 보통과의 고교 안에서 이른바 학생지도곤란학교라 여겨지던 고등학교들이 고민을 안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 하거나 대인 관계에서 과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의 거처를 확보하려는 시도들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는 고교에서는 매주 1회 도서관에서 카페를 개최하고 지역 자원봉사자와 NPO 등의 직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음식이나 음료 등을 제공하고 음악을 들려주며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어 고민 상담을 하는 장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거처 만들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어려움을 안고 있는 학생들이 고교를

중퇴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3. 정리

고교 중퇴 문제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또한 필자가 연구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에서도 심각한 과제로 취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젊은 개인이 안고 있는 내면적인 과제 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를 둘러싼 복수의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또한 중퇴 문제를 방치해두면 생활보호와 취로 지원 등 장래의 사회 복지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사회를 지탱하는 젊은이들의 사회적, 직업적 자립을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해결을 위한 한 시작점이 일본 및 캐나다의 실천을 통해 본 고교 교육 커리큘럼에서의 Relevance 문제와 젊은이들의 거처만들기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필자의 한국 고교 방문에서도 같은 시도들을 볼 기회를 얻었다.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일본과 한국에서의 시도들에 대해 교류 할 기회로 삼고 싶다.

Akimoto Shinji(Reitaku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私立麗澤中学・高等学校のキャリア教育について

秋元　誠道(Akimoto Shinji, 麗澤中学・高等学校)
早稲田大学大学院　教育学研究科　高度教職実践専攻
学校法人廣池学園より１年間派遣（教職経験１１年）

これまでの実践概要

麗澤中学・高等学校では、２００２年中学校開設を機に、中高一貫９年間の強みを活かしたキャリア教育を行ってきた。この教育は総合的学習の時間を使って行われ、本校ではこれを「自分（ゆめ）プロジェクト」と呼んでいる。「自分プロジェクト」では、中学１年次から１０年後、２０年後の自分をイメージするための教育を行ってきた。

前半の中学期は、できるだけ広く広く子どもたちの関心を拡散し、ダイナミックに可能性を探り追求できるようにプログラムを組んでいる。自分を取り巻く環境を「自然」「文化」「社会」の３つの側面から考察し、それぞれに小テーマを設けて研究を行う。

1年次は、自分たちを取り巻く環境、自然を理解するために、キャンパスの植物観察から始め、「フィールドワーク」や「森と人間社会」の研究を行う。2年次は、社会国家に目を向け、「日本文化研究」（関西研修）や職業研究を行う。3年次には職業研究について、自分たちなりにまとめ、最終的には「異文化研究」（イギリス研修）を行い、自分という存在を多方面から見つめ直す。そして、一つひとつの経験について、小テーマ決定からプレゼンテーションまでを行い、その一連の流れをまとめて学習成果をポートフォリオとしてファイリングする。

後半の高校期では、中学期に伸びやかに広げた関心・知識・探究心を、生徒自らの夢や志を再発見し実現に向けて収束させていく。

4年次(高校１年）では『自分再発見』をテーマに卒業生の進路講演などを通じて、様々な職業、大学、学部などについて研究、自らの進むべき道を見出す。

5年次（高校２年）では大学の学びや日本の歴史について学びを深めることで、自らの使命や志の再発見へとつなげる。

さらに6年次(高校３年）には志の実現に一歩近づくために、それぞれの第一志望大学に向かって、「プロジェクト叡智」や「受験小論文特講」などの受験対策講座に臨み、３年間の学びを集大成していく。　（参照　http://www.hs.reitaku.jp/heart/2012073119331618.html　）

麗澤中学・高等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のこれからの課題

麗澤中学・高等学校のキャリア教育は「自分（ゆめ）プロジェクト」の中で行われるが、ここでの課題は２点ある。１点目は直接職業について考える時間が少ないことと、２点目は職業に関する体験学習がないことである。

まず、「自分プロジェクト」の中で、職業について学ぶのは中学２年次の３学期から中学３年次の１学期の間である。この期間に世の中の職業について広く調べ、その後関心のある職業について深く掘り下げ、最終的には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行う。生徒たちが中学時代に職業について考える時間が、期間として６ヵ月程度と短いのが現状である。今後、職業についての学習を効果的に行うために、時間の延長や分散が必要だと考える。

そして、本校には職業体験がない。そのため、キャリア学習で職業について学んでもそれは机上の理解だけにとどまっている。これまでにも職業体験を実施しようという検討はあったものの、私立学校ということで、地域との連携がなされていないという現状がある。今後、職業体験実施の可能性を探っていきたい。

사립 레이타쿠 중•고등학교 커리어 교육에 대하여

아키모토 신지 (Akimoto Shinji, 레이타쿠 중•고등학교)
와세다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고도교직실천전공
학교법인 히로이케가쿠인에서 1년간 파견 (교직경험 11년)

현재까지의 실천 개요

레이타쿠 중·고등학교에서는 2002년 중학교 개설을 계기로 중고 일관 9년간의 강점을 살린 커리어 교육을 행해왔다. 이 교육은 종합적 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며 본교에서는 이것을 '자기(꿈) 프로젝트'라 부른다. '자기 프로젝트'에서는 중학교 1년차부터 10년 후 20년 후의 자신을 이미지 하기 위한 교육을 행해왔다.

전반의 중학기는 가능한 한 아이들의 관심을 폭넓게 확산시키고 다이나믹하게 가능성을 찾아 추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자연', '문화', '사회'의 세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여 각각 작은 테마를 설정해 연구한다.

1년차에는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캠퍼스의 식물 관찰부터 시작하는 '필드 워크'와 '숲과 인간 사회'의 연구를 한다. 2년차는 사회, 국가에 눈을 돌려 '일본문화연구'(간사이 연수)와 직업 활동을 한다. 3년차에는 직업 연구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이문화연구' (영국 연수)를 통해 자기라는 존재를 다방면에서 다시 살펴보게 한다. 그리고 하나 하나의 경험에서 작은 테마를 정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해 학습성과를 포트폴리오하고 파일링 한다.

후반의 고교기에서는 중학기에 자연스럽게 늘어난 관심, 지식, 탐구심 등이 학생들 스스로의 꿈과 의지의 재발견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실현 가능하도록 도와 나간다.

4년차 (고교 1년)에서는 "자기 재발견"을 테마로 하고 졸업생들의 진로 강연등을 통해 다양한 직업, 대학, 학부 등에 대해 연구하고 스스로 나아갈 길을 찾는다.

5년차 (고교 2년)에서는 대학에서의 배움과 일본 역사에 대해 깊이 배움으로써 본인의 사명과 의지의 재발견으로 이어진다.

이어 6년차 (고교 3년)에는 의지의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각각 제1지망 대학에 맞추어 '프로젝트 예지'와 '수험 소논문 특강' 등 수험 대책 강좌 등에 임하며 3년간의 배움을 집대성해 나간다. (참고 http://www.hs.reitaku.jp/heart/2012073119331618.html)

레이타쿠 중·고등학교의 커리어 교육의 지금부터의 과제

레이타쿠 중·고등학교의 커리어 교육은 '자기 (꿈) 프로젝트'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의 과제는 두 가지다. 첫번째는 직접 직업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과 두번째는 직업에 관한 체험 학습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자기 프로젝트' 안에서 직업에 대해 배우는 것은 중학교 2년차 3학기부터 중학교 3년차 1학기 사이이다. 이 기간에 이 세상의 직업에 대해 널리 조사하고 그 후 관심이 있는 직업에 대하여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취업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기간적으로 6개월 정도로 짧은 상황이다. 향후 직업에 대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 연장과 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교에는 직업 체험이 없다. 그러므로 커리어 교육에서 직업에 대해 배워도 그것은 책상에서 이해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 지금까지도 직업체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토는 있었지만 사립 학교라는 점에서 지역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향후 직업 체험 실시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Wakae Maki(Careerlink Inc.)

学校教育に特化したコンサルティングで、社会とつながるキャリア教育支援を実現

若江眞紀(Wakae Maki)
所属： 株式会社キャリアリンク　代表取締役

●株式会社キャリアリンクについて

キャリアリンクは、学校教育分野を専門に、中でも公教育改革に特化した教育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で、1991年に創業、25年の活動実績があります。
学校教育と社会を繋げることを、「キャリア教育」をテーマに実践し、CSR活動の一環として企業の教育支援の啓発・推進・実施についてトータルコンサルテーションに力を注いでいます。

●キャリア教育とのかかわり

日本の学校教育においては、1994年当初、キャリア教育について多くの教員は「進路指導」ととらえる傾向がありましたが、現在では「子どもたちが、将来、社会的・職業的に自立し、社会の中で自分の役割を果たしながら、自分らしい生き方を実現するための力を育成する」ための教育であることが浸透し、学校教育における社会とつながる学びの重要性への理解と期待が高まっています。

●企業の教育CSR活動の推進

株式会社キャリアリンクは、社会貢献の一環として教育支援活動をしたいと考えている企業に対し、これからの学校教育が目指す方向性に沿った教育支援活動を実現するためのコンサルティングを行っています。

① 企業講師が学校に出向いて授業を実施する「出張授業」
② 児童・生徒用の教材を提供して教員が授業を行う「教材提供」
③ 工場等の施設で児童・生徒向けのプログラムを実施する「工場見学」
④ その他「コンクール」「教員研修」「助成金支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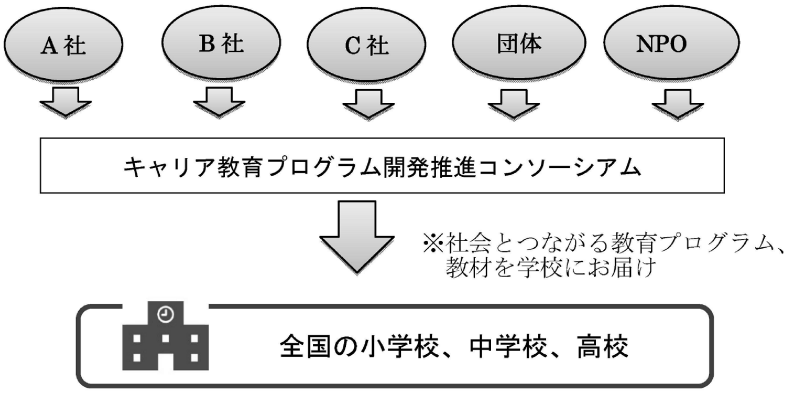
などが代表的な企業の教育支援プログラムです。

近年、企業が提供する「社会と結びついた教育プログラム」「リアルな題材」「企業人としての生き方」から得られる学びの意義や効果が注目されていますが、持続可能な仕組みとするためにも教育現場と産業界双方にとってのWin-Winの価値をもたらすことが大切です。

企業が持つ独自の教育的なリソース（技術・サービス・製品などの技術革新や企業理念など）を児童・生徒のキャリア開発につながるメッセージとして、最も効果的に結び付けることができる学年、教科・単元や教育手法を検討し、学校教育で効果的に活用できるプログラム・教材を開発するのも我々の事業です。さらに、開発した企業の教育支援プログラム・教材を、全国のより多くの児童・生徒に届けるためのしくみとして、2006年、キャリア教育プログラム開発推進コンソーシアムを設立しました。

●キャリア教育プログラム開発推進コンソーシアムの活動概要（ http://www.career-program.ne.jp/）

「キャリア教育プログラム開発推進コンソーシアム」は、メンバー企業・団体それぞれが持つ独自のキャリア教育プログラム、教材を協働で、**学校現場にすべて無償**でお届けしています。



●コンソーシアムのサービス内容

【サービス１】教育委員会向けに、全企業・団体の教育プログラム・教材を掲載した冊子「Future Forecast を発行（※2016 年度版冊子配布）

➡学校現場への体系的なプログラム活用を普及・促進

【サービス 2】教員向けに、全企業・団体の教育プログラムが自由に検索できる WEB サイトを運営。

➡教員が自身の学年、教科、どのように活用したいかにより、自由にプログラムを検索し、資料請求や申し込みが可能

【サービス 3】教育関係者や教育支援活動に携わる企業・団体がいっしょに教育の未来を考える「教育 CSR フォーラム」の開催

➡文部科学省、自治体、学校、保護者や地域の方、企業・団体など、多様な立場から参加できる、学び合いの機会提供

●教育プログラム、教材の特徴

従来キャリア教育として重要と考えられてきた「論理的思考」「批判的志向」「問題解決・発見力」の育成を視点にした多様なテーマの 44 プログラムを、各学年の教科学習の発展として活用するなど「カリキュラムマネジメント」の視点で学校全体でトータルに組み合わせての活用を推進しています。

＜2017 年度　コンソーシアムメンバー　24 企業・団体、44 プログラムの概要＞

【対　象】　小学校 1 年生～高校 3 年生、教員対象の研修プログラム

【教　科】　生活、理科、社会科、技術・家庭科、保健体育、道徳、総合的な学習の時間、特別活動

【授業形式】出張授業型（企業講師が授業実施）、教材提供型（教員が授業実施）、工場見学型　など

【テーマ】　環境、エネルギー、家事、掃除、住宅、金融・経済、化学、健康、オリンピック　など

【教　材】　教員用：ティーチャーズガイド、スライド　　児童・生徒用：ワークブック、映像など

학교 교육에 특화된 컨설팅으로 사회와 연결된 커리어 교육 지원을 실현

와카에마키(Wakae Maki)
소속: 주식회사 커리어링 대표이사 역

· 주식회사 커리어링에 대하여

커리어링은 학교 교육 분야를 전문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공교육혁신에 특화된 교육 컨설팅 회사로 1991년에 창업하여 25년간의 영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사회를 연결하는 것을 '커리어 교육'의 테마로 실천하고 CSR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의 교육 지원 계발 · 추진 · 실시에 대한 토탈 컨설팅에 힘쓰고 있습니다.

· 커리어 교육과의 관련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는 1994년 당초 커리어 교육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진로 지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이들이 미래에 사회적, 직업적으로 자립하고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여 자기다운 삶의 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힘을 육성하는' 교육이라는 점이 인식되어 학교 교육에서 사회와 연관되는 것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기업의 교육 CSR 활동 추진

주식회사 커리어링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공교육 지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지금부터 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에 따라 교육 지원 활동을 실현하려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 강사가 학교로 출강하여 수업을 실시한다 '출장 수업'
② 아동, 학생용 교재를 제공하여 교직원들이 수업을 한다 '교재 제공'
③ 공장 등의 시설에서 아동 • 학생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공장 견학'
④ 기타 '콩쿨', '교사 연구', '조성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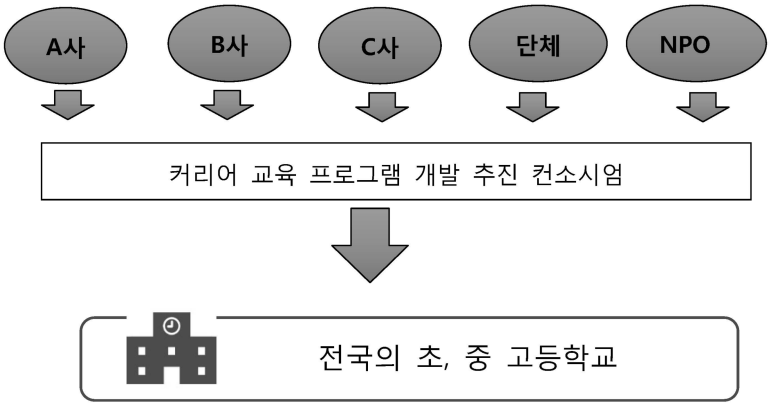
등이 대표적인 기업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와 연결된 교육 프로그램', '리얼한 주제', '기업인으로서 살아가는 법' 에서 얻을 수 있는 배움의 의의와 효과가 주목받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하려면 교육 현장과 산업계 모두에서의 Win-Win 할 수 있는 가치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가진 독자적인 교육적 리소스 (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기술 혁신과 기업 이념 등)를 아동, 학생의 커리어 개발에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 시킬 수 있는 학년, 교과, 단원과 교육 방법을 검토하여 학교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사업입니다. 더욱이 개발한 기업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재를 전국에 보다 많은 아동, 학생들이 접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6년 커리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컨소시엄을 설립했습니다.

· 커리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컨소시엄의 활동 개요 (http://www.career-program.ne.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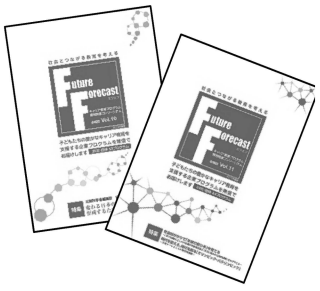
'커리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컨소시엄'은 멤버 기업, 단체 등 각자가 가진 독자적인 커리어 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학교 현장에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컨소시엄 서비스 내용

【서비스 1】 교육위원회용으로 전 기업,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게재한 책자 'Future Forecast를 발행 (※2016년도판 책자 배포)

➡ 학교 현장에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활용을 보급, 촉진



【서비스 2】교직원용으로 전 기업,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검색 할 수 있는 WEB 사이트를 운영,

➡ 교직원이 자신의 학년, 교과,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자료 청구와 신청이 가능함

【서비스 3】 교육 관계자와 교육 지원 활동과 관련된 기업, 단체가 함께 교육의 미래를 생각한다. '교육 CSR 포럼' 개최

➡ 문부과학성, 지자체, 학교, 보호자와 지역 사람들,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입장에서 참가 할 수 있다. 배움의 기회 제공

· 교육 프로그램, 교재의 특징

미래의 커리어 교육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온 '윤리적 사고', '비판적 지향', '문제해결, 발견력'의 육성을 시점으로 한 다양한 테마의 44개 프로그램을 각 학년의 교과 학습의 발전으로 활용하는 등 '커리큘럼 매니지먼트'라는 시점으로 학교 전체에서 토탈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컨소시엄 멤버 24 기업, 단체, 44개 프로그램 개요>

【대상】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교직원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

【교과】 생활, 이과, 사회과, 기술, 가정과, 보건 체육, 도덕, 종합적인 학습 시간, 특별활동

【수업 형식】 출장수업형(기업 강사가 수업 실시), 교재 제공형 (교원이 수업 실시), 공장 견학형 등

【테마】 환경, 에너지, 가사, 청소, 주택, 금융, 경제, 화학, 건강, 올림픽 등

【교재】 교원용: 티쳐스 가이드, 슬라이드 아동, 학생용: 워크북, 영상 등

Yajima Ryutaro(Chikuseisi Municipal Elementary School)

キャリア教育で身に付ける力を取り入れた小学校の学級活動

－保護者の願いを学級目標に取り入れる活動を通して－

谷島　竜太郎(Yajima Ryutaro)
茨城県筑西市立川島小学校　教諭

1　はじめに

本校は茨城県の県西部に位置し，東に五行川と小貝川，西に鬼怒川が流れる自然豊かな地域である。児童数は514名の大規模校である。また，平成19年度から学級活動を研究している学校であり，昨年度は国立教育政策研究所による学習指導実践研究協力校事業の研究協力校として，実践を行ってきた。現行の学習指導要領（平成20年３月告示）における学級活動⑴では「３段階討議法」（出し合う→比べ合う→まとめる），学級活動⑵では「４段階展開法」（つかむ→さぐる→見付ける→決める）という指導法を活用し，実践研究を積み重ねてきた。

2　学級活動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で身に付ける力

⑴　活動について

児童にとって最も身近な集団である学級の目標を決める活動になる。学級目標は話し合う活動を通して決めていくが，本校ではアンケートで集計した「保護者の願い」も取り入れて決める。これは家庭と連携した教育活動を補うものとして，保護者の視点をキャリア教育で身に付ける力として取り入れた活動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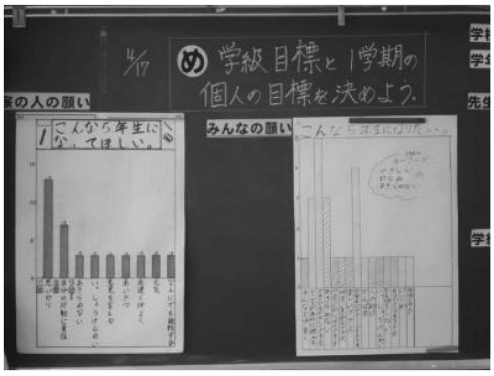
⑵　ねらい

○家庭での話合いや学級での話合いを通して，他者の立場や考え方を理解する力を育てる。→かかわる力
○自分の長所や短所を理解し，自分らしさを発揮していく力を育てる。→みつめる力
○理想とするクラスのイメージをもち，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考える力を育てる。→うごく力
○保護者の願いを深く知ることで，将来の自分を思い描き，実現を目指して努力する力を育てる。→みとおす力

⑶ 成果

①　活動の様子から

従来，学級活動のスタートは授業時間から　になるが，事前の段階で保護者に向けて，「保護者の願い」を依頼しておけば，家庭での話合いから「さぐる」段階がスタートすることになる。これにより，キャリア教育で身に付けたい力である「かかわる力」が伸びた。さらに，かかわる力と連動して，自分の長所や短所を理解する「みつめる力」と，将来の自分を思い描き，実現を目指して努力する「みとおす力」の育成にも効果的であった。



【見付ける段階の黒板掲示写真】

②　児童の振り返りから（記述）

○「かかわる力」

・お家の人が「こんな願いをもっているんだなぁ。」と思い，私をどんなふうに思っているかを知ることができるからよいと思う。

・保護者が自分たちの成長を願う気持ちが分かり，自分たちと違う意見を素直に理解することができた。

・親と考えることで，親の学校についての話が分かりよかった。学校の生活について話をすることが増えた。

○「みつめる力」

・親と話してみて，自分の細かいところまで見てくれるので，よいところとまずいところが分かった。

・「働く」という言葉を使っていたので，家で働いていないのかなぁと……。もっと家でも，お手伝いをすればよかった。

・自分の悪いところを直す言葉を入れてくれるので，自分の悪いところに気付くことができた。

○「みとおす力」

・もっと保護者の願いを具体的にすると，私たちももっと努力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例えば，目指すところなどを，一緒に相談しながら決めていきた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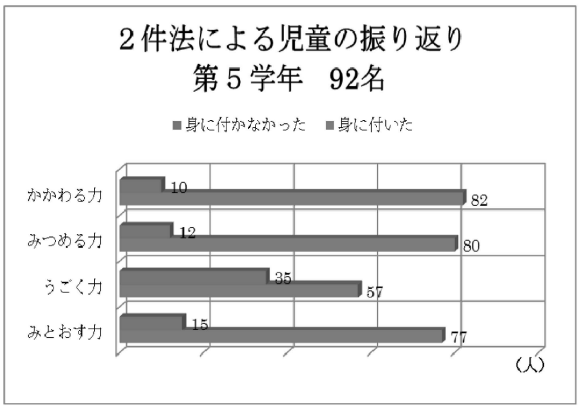
・「もっと自分が頑張らないと。」という気持ちが強くなった。

・お家の人が思っている人に向かって頑張ると，達成感が生まれるので頑張ることができる。

(4) 課題

「保護者の願い」を取り入れることで展開できるキャリア教育の実践から，課題も見えてきた。それは，「うごく力」の育成に向けての課題である。児童の振り返りによる集計結果を，以下に示してみる。

これは，平成28年度の第5学年92名に行った調査結果である。成果として挙げた3つの力を見ていくと，「かかわる力」が身に付いたと答えた児童は89.1%，「みつめる力」が身に付いたと答えた児童は86.9%，「みとおす力」が身に付いたと答えた児童は83.6%であった。ところが，「うごく力」が身に付いたと答えた児童は61.9%であった。ここから，「うごく力」の育成には，さらなる一手間，つまり一工夫が必要であることが分かる。例えば，児童の「みとおす力」の記述による振り返りにあるような「一緒に相談しながら」といった一工夫を考えていくことが大切になってくると考える。学期の途中で，または定期的に保護者の方からご意見をいただく機会を設け，課題の改善に努めていきたい。



커리어 교육에서 익힐 수 있는 능력은 반영한 초등학교의 학급활동
-보호자의 바람을 학급 목표로 반영시킨 활동을 통하여-

야지마 류타로 (Yajima Ryutaro)
이바라키현 치쿠세이시립 카와시마 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면서

본교는 이바라기현의 현 서부에 위치하고 동쪽으로 고교강, 코가이 강, 서쪽으로 키누강이 흐르는 자연이 풍요로운 지역이다. 아동수는 514명의 대규모 학교이다. 또한 2007년도부터 학급 활동을 연구하고 있는 학교로 작년에는 국립 교육 정책 연구소가 지정한 학습 지도 실천 연구 협력 학교 사업의 연구 협력 학교로 실천을 해왔다. 현행의 학습 지도 요령 (2008년 3월 고시)의 학급 활동 (1)에서는 '3단계 검토법' (제출→비교→정리), 학급 활동 (2)에서는 '4단계 전개법' (포착→탐구→발견→결정)이라는 지도법을 활용하여 실천 연구를 거듭해 왔다.

2. 학급 활동의 커리어 교육에서 익힐 수 있는 힘

(1) 활동에 대하여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집단인 학급의 목표를 결정하는 활동이 된다. 학급 목표는 의논하는 활동을 통하여 결정하는데 본교에서는 설문조사로 집계된 '보호자의 바람'도 반영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가정과 연계된 교육 활동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호자의 시점을 커리어 교육을 통해 능력으로 익힐 수 있게 반영한 활동이다.

(2) 목적

○가정에서의 논의와 학급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이해하는 힘을 기른다. → 관계되는 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 살펴보는 힘

○이상적인 학급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 → 움직이는 힘

○보호자의 바람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자신을 그려보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힘을 기른다→내다보는 힘

(3) 성과

①활동의 모습에서

원래, 학급 활동의 시작은 수업 시간부터이지만 사전 단계에서 보호자를 향해 '보호자의 바람'을 의뢰해 두면 가정에서의 논의를 통해 '탐구' 단계가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커리어 교육으로 익힌 '관계되는 힘'이 늘어났다. 더욱이 관계되는 힘과 연동하여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는 '살펴보는 힘'과 미래의 자신을 그려보며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내다보는 힘' 육성에도 효과적이었다.

<그림: 발견하는 단계의 칠판 게시 사진>

②아동이 되돌아 본 점 (기술)

○관계되는 힘

- 가족들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한다.
- 보호자가 자신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을 알게 되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솔직하게 이해 할 수 있었다.
- 부모와 함께 생각함으로써 부모의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늘었다.

○'살펴보는 힘'

- 부모와 이야기를 해 보면 자신의 세세한 부분까지 봐주기 때문에 좋은 것과 안 좋은 부분을 알 수 있었다.
- '일한다'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집에서 일하지 않는 것인가... 좀 더 집에서도 잘 도와주면 좋겠다.
- 자신의 나쁜 점을 고칠 단어를 넣어주기 때문에 자신의 나쁜 점을 깨닫게 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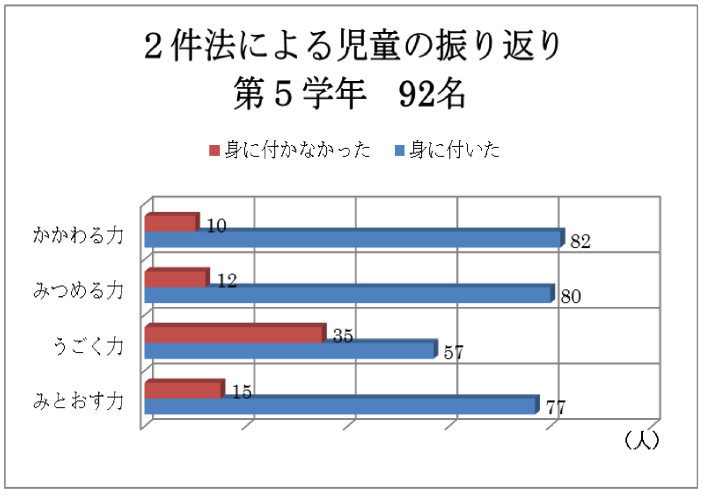
○내다보는 힘

- 좀 더 보호자의 바람이 구체적이 되면 우리들도 좀 더 노력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목표로 하는 것 등을 함께 상담하면서 정하고 싶다.
- '좀 더 내가 힘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졌다.

- 가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다.

(4) 과제

'보호자의 바람'을 반영함으로써 전개 할 수 있는 커리어 교육의 실천에서 과제도 드러난다. 그것은 '움직이는 힘'의 육성을 위한 과제이다. 아동의 회고에 의한 집계 결과를 이하로 나타내어 본다.



이것은 2016년 제 5학년 92명에게 실시한 조사결과이다. 성과로 꼽고 있는 세가지 힘을 보고 있으면 '관계되는 힘'을 길렀다고 대답한 아동은 89.1%, '살펴보는 힘'을 길렀다고 대답한 아동은 86.9%, '내다보는 힘'을 길렀다고 대답한 아동은 83.6%였다. 그러나 '움직이는 힘'을 길렀다고 대답한 아동은 61.9%였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힘'을 육성하려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즉 좀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아동의 '내다보는 힘'의 기술에서 회고한 것처럼 '같이 상담하면서' 등의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기 도중이나 정기적으로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받는 기회를 마련하여 과제 개선에 노력하고자 한다.

Kyan Hiroe(GoodJob Okinawa Project, NPO)

沖縄県における小中学生に対する産業団体と連携した業界別キャリア教育

喜屋武　裕江(Kyan Hiroe,　一般社団法人グッジョブおきなわプロジェクト)

はじめに

我が沖縄県は、日本列島の南西に位置し、東アジアと東南アジアの中間に位置する南北400キロ、東西1,000キロの範囲に、39の有人離島を含む人口130万人の島嶼県である。かつて沖縄は「琉球」と呼ばれ大航海時代に先駆ける14～15世紀、中国、インドネシア、朝鮮半島に至る広大な地域と、貿易や文化の交流を行うなど独立国として華々しい繁栄を謳歌していた。しかし1600年代の琉球侵攻の末に日本の配下に置かれ、また第二次世界大戦では敗戦とともにアメリカ合衆国の配下に置かれるなど、時代に翻弄された歴史も併せ持っている。

背景と現状

現在の沖縄県においては、1972年の施政権の日本政府返還以降、全国平均を上回る完全失業率が続いており、県民所得ともに国内最下位である。課題解決のために、2007年より沖縄県は施策と連動した県民運動「みんなでグッジョブ運動」(以下、県民運動)を展開している。当初、完全失業率8%だったこともあり、全国平均 4%の並に改善することを目標に掲げられた。課題解決に向けた要点は3点、①雇用の場を増やす ②雇用のミスマッチを防ぐ　③キャリア教育の充実である。この中で特筆すべきものは、県民運動の要石に「ジョブシャドウイング」を活用したキャリア教育を置き、将来を担う子ども達に対するキャリア教育を謳いながらも、同時に“働く”を大人にも考える機会をつくり、双方に対して勤労観・職業観の醸成とキャリア形成につなげる取り組みを目指しているところである。

県民運動が開始されて今年で10年目。国際物流拠点とするハブ機能、高度IT産業集積エリアなどの経済戦略や経済特区、新規ビジネスモデルへの支援強化などの施策により、国内外から誘致された企業は500社を超えた。リーディング産業である観光においてアジアを中心としたクルーズ船の就航などで入域観光客数が800万人を超えたことを機に、経済成長率ならびに人口増加率が全国トップとなった。このように業界団体、企業、自治体の努力が実を結び、失業率3%までに改善している。

またキャリア教育に関しては、2009年には市町村単位で教育委員会、学校、経済団体そして行政が連携し、各主体間で協議・意思決定する協議会方式による地域連携型キャリア教育のロールモデルを確立した。この「地域の人材は地域で育てる」を目指し、産学官ならびに地域が連携する仕組みを構築した取り組みは、20市町村まで広がっている。この取り組みに対して、2015年に文部科学省と経済産業省の共同表彰制度「キャリア教育推進連携表彰」優秀賞を受賞した。

課題

2007年当初より県民運動の中心にキャリア教育を据えた大きな要因は、若年者雇用の課題が深刻な現状にあったためである。若年者と分類される15歳以上34歳未満の完全失業率13%、新規学卒無業者は、高卒18%、大卒27%であった。加えて非正規雇用率そして早期離職率が全国ワースト１であった。この若年者を取り巻く厳しい環境を改善するために、「学校から社会への円滑な移行」という観点から、キャリア教育を充実させることが有効であると県民運動を推進してきた。しかし県全体の完全失業率が8%から3%と雇用の”量”の部分が大きく改善されたにも関わらず、若年者無業数をはじめとする若年者雇用に関する数値は、改善傾向はみられるものの大きな変化は見られない。

その原因を考えるにあたり、県内の高校生や大学生の進路選択時において「公務員志向」「沖縄志向」「家

族・友人志向」という言葉をよく耳にする。要するに気心が知れた人たちに囲まれ、安心できるエリアで、時勢に翻弄されない安定した生活を送りたいという考えである。それを物語るものとして、高校生に対する調査では、将来なりたい職業の第1位は、生徒、保護者ともに「公務員」を挙げている。実際に合格率10～15倍の狭き門を目指す公務員浪人も珍しくない。

一方で、各業界ともに景気の動向に関係なく人材確保に苦慮している。これは求職者本人の視野の狭さに相まって、業種や職種に対する偏見や誤った認識が影響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そのため企業説明会を開催しても電力、金融、航空といった大手企業に人気が集中しており、ネームバリューが低い企業の人気は低い。ゆえに99.8%が中小企業という沖縄県では「仕事はあっても就職できない」という不可思議な現実がある。

これらは職業や産業に関する情報不足していること考えられる。職種の種類だけでなく、自分の得意なものが生かされる職業は何か、興味のある職業に就くために必要なスキルや、今から出来ることは何か等を考える機会を、先延ばしにしてきたまま選択の時を迎えてしまったことが考えられる。また前述の調査結果に進路選択に影響を与えている相手として、1位「母親」2位「父親」次いで「教師」とある。彼らに信頼され身近で影響力を与える支援者の価値観や情報の正確さは。進路決定に大きく影響するものと考えられる。

方法と目的

県民運動の中で展開してきたキャリア教育は、地域でのキャリア教育に対する支援の輪を広げるという横展開に加え、6年目を迎える2013年からは、学校の先にある”社会”との緊密な協力と円滑な接続をめざした縦の連携を構築していった。「産業毎の魅力」を受発信する「未来の産業人事育成事業」という取り組みは、沖縄県の主要な産業でありながらも人材育成ならびに確保に課題を有する「観光」「建設」「情報通信」「医療」「福祉」「文化」「物流流通」の7業界と連携して実施した。本事業を実施するにあたり、産業界と学校をつなげるために、それぞれの現状や課題に精通するコーディネーターを配置し双方のつなぎ役とした。

対象は沖縄県全域の小中学生。将来の夢と希望を育む段階の小学生と「なりたい自分」と「なれる自分」の”差”に気づきはじめる中学生に対して、職種の多様性や産業毎の魅力を伝えることで、視野を広げ就業意識を高めながら、児童生徒が自らの興味関心がどこにあるのか。自分の特性を生かせるのは何かを考える機会をつくる。併せて、児童生徒の身近な存在である教員、保護者に対しても行う。

方法は、次の3つのツールを活用する。①職業人講話　②体験（学校出張）講座　③見学ツアー　を、教育課程上の各教科に位置付けて取り組んだ。各校の年間学習計画の策定時に教育委員会と連携をして調整を行う。これらのツールを補足するために、7産業の概要を説明するDVDを制作し、県内の全ての小中学校へ配布した。このDVDは、小学4・5年生が理解できる内容とし、各15分×7産業の構成となっている。企画、取材に至るまで産業業界団体と半年かけて制作した。

成果

2013年から2016年までの4年間で、のべ207小中学校、23,673名の児童生徒に対して実施されている。協力企業数は125事業所となり187名の方々が講師としてキャリア教育に携わった。また教職員向けの実施は、1,251名に対し講話34回、企業見学ツアー3件行い、保護者向け講演会は　25回　1,492名に対して行った。

この取り組みの中に、「産学合同会議」という、教育界と産業界、行政が一堂に会して行う円卓会議が年2回ずつ行われおり、これまでの4年間で5回実施した。参加者は教育委員会や実施校の教員、事業にかかわる7産業の各代表者そして各産業と関連のある行政担当者である。キャリア教育の意義や採用や人事における課題などの情報共有をしながら、学校別での好事例や産業毎の好事例を紹介するなど、今後キャリア教育を行う上での学校や企業が大切にする事について熟議を重ねている。

오키나와현의 초중생에 대한 산업단체와 연계된 업계별 커리어교육

히로에(Kyan Hiroe, 일반 사단법인 굿잡 오키나와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우리 오키나와는 일본 열도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400km, 동서로 1000km로 펼쳐져 있고 39개의 유인도를 포함해 인구 130만명의 도서로 이루어진 현이다. 과거 오키나와는 '류큐'로 불리며 대항해 시대에 가장 앞서 14~15세기에 중국, 인도네시아, 조선반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과 무역, 문화 교류를 하는 등 독립국으로서 눈부신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1600년대 류큐 침공 끝에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미합중국의 지배하에 놓이는 등 시대에 농락당한 역사도 함께 가지고 있다.

배경과 현황

현재의 오키나와에서는 1972년 시정권의 일본정부 반환 이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완전실업률이 이어졌으며 현민 소득 모두 국내 최하위였다. 과제 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오키나와 현은 시책과 연동된 현민 운동 '모두 함께 굿잡 운동' (이하, 현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당초에는 완전실업률이 8%였기 때문에 전국 평균인 4%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다. 과제 해결을 위한 요점은 3가지로 ①고용의 장을 늘린다 ②고용의 미스매치를 막는다 ③커리어 교육을 확충한다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특필 할 만한 것은 현민 운동의 요체로 '잡 쉐도잉'을 활용한 커리어 교육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 대한 커리어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어른들에게도 생각할 기회를 주어 양쪽 모두에 근로관, 직업관을 양성하고 커리어 형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력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현민 운동이 개시 된지 올해로 10년째. 국제 물류 거점 허브 기능, 고도의 IT산업 집적 영역 등의 경제 전략과 경제 특구, 신규 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시책으로 국내외에서 유치된 기업은 500사를 넘었다. 리딩 산업인 관광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크루즈 선박의 취선 등으로 입역 관광객수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을 계기로 경제 성장률 및 인구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렇듯 산업 단체, 기업, 지자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실업률 3%까지 개선되었다.

또한 커리어 교육에 관해서는 2009년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교육 위원회, 학교, 경제 단체 그리고 행정이 연계하여 각 주체 간에 협의, 의사 결정을 하는 협의회 방식으로 지역 연계 형태 커리어 교육의 롤 모델을 확립했다. 이 '지역의 인재는 지역에서 기른다' 를 목적으로 산학관 및 지역이 연계하는 구조를 구축한 시도는 20개의 기초자

치단체로 확대되었다. 이 시도들에 대해 2015년에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의 공동표창 제도 '커리어 교육 추진 연계 표창'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과제.

2007년 당초보다 현민 운동의 중심에 커리어 교육을 둔 큰 요인은 청년층 고용 과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청년층으로 분류되는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완전 실업률은 13%, 신규 졸업 무직자는 고졸 18%, 대졸 27%였다. 덧붙여 비정규 고용률 그리고 조기 이직률이 전국 1위였다. 이러한 청년층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커리어 교육을 확충 시키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 현민 운동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 전체의 완전실업률이 8%에서 3%로 고용의 "질"의 부분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무직 수를 비롯한 청년층 고용에 관한 수치는 개선 경향은 보이나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 원인을 생각함에 있어 현 내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진로 선택 시에 '공무원 지향', '오키나와 지향', '가족, 친구 지향' 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된다. 요컨대 서로 잘 아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안심할 수 있는 곳에서 시대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고교생에 대한 조사에서 장래에 되고 싶은 직업 제 1위는 학생, 보호자 모두 '공무원'을 꼽고있다. 실제로 합격률의 10~15배의 좁은 관문을 목표로 하는 공무원 재수생도 드물지 않다.

한편 각 업계 모두 경기 동향과 관계 없이 인재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 이는 구직자 본인의 시야가 좁은 것도 있고 업종이나 직종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해도 전력, 금융, 항공 등 대기업에 인기가 집중되고 네임 밸류가 낮은 기업은 인기가 낮다. 그러므로 99.8%가 중소기업인 오키나와에서는 '일이 있어도 취직 할 수 없다'는 불가사의한 현실이 있다.

이것은 직종과 산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직종의 종류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인지 흥미가 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미뤄온 채 선택의 시간을 맞이해 버리고 말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술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대로 1위 '어머니', 2위 '아버지에 이어 '교사'가 있었다. 그들에게 신뢰받으며 최근에는 영향력을 미치는 지원자의 가치관과 정보의 정확함은 진로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방법과 목적

현민 운동 속에서 전개되어온 커리어 교육은 지역에서의 커리어 교육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한다는 횡단적 전개에 더불어 6년째를 맞이하는 2013년부터는 학교 후의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접속을 지향한 종적인 연대를 구축해왔다. '산업해의 매력'을 수신하고 발신하는 '미래의 산업 인사 육성 사업'이라는 시도들은 오키나와현의 주요한 산업이면서도 인재 육성 및 확보에 과제를 지닌 '관광', '건축', '정보통신', '의료', '복지', '문화', '물류유통'의 7 업계와 연계하여 실시되었다. 본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산업계와 학교를 연결할 수 있도록 각각의 현황과 과제에 정통한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쌍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했다.

대상은 오키나와현 전역의 초 중학생. 장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단계인 초등학생과 '되고 싶은 자신'과 '될 수 있는 자신'의 차이를 깨닫기 시작한 중학생에 대해 직종의 다양성과 산업해의 매력을 전달함으로써 시야를 넓혀 직업 의식을 고취시키며 아동 학생들이 스스로가 흥미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만든다. 이와 함께 아동 학생의 가까운 존재인 교사, 보호자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방법은 다음의 세가지 도구를 활용한다. ①직업인 강좌 ②체험 (학교 출장) 강좌 ③견학 투어를 교육 과정상의 각 교과에 규정하여 실시하였다. 각 학교의 연간 학습 계획 책정 시에 교육 위원회와 연계하여 조정한다. 이러한 툴을 보충하기 위해 7산업의 개요를 설명하는 dvd를 제작하고 현 내의 전 초 중학교에 배포하였다. 이 dvd는 초 4, 5 학년생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각 15분 7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있다. 기획, 취재에 이르기까지 산업 업계 단체와 반년 동안 제작하였다.

성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207개의 초 중학교 23,673명의 아동 학생들에 대해 실시되었다. 협력 기업 수는 125개 사업소, 187분이 강사로서 커리어 교육에 관계되었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1,251명에게 강의 34회, 기업 견학 투어 3건을 실시했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회는 25회, 1,492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 시도들 안에 '산학 합동 회의'라는 교육계와 산업계, 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실시하는 원탁회의가 연 2회씩 실시되고 있고 지금까지 4년간 5회 실시되었다. 참가자는 교육 위원회와 실시 학교의 교사, 사업과 관련된 7산업의 각 대표자 그리고 각 산업과 관련된 행정 담당자이다. 커리어 교육의 의의와 채용, 인사 과제 등의 정보 제공을 하면서 학교별 좋은 사례와 산업해의 좋은 사례를 소개하는 등 향후 커리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기업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심도깊은 회의를 해왔다.

Hirano Satomi(Hankyu Hanshin Holdings, Inc.)

まちの発展に情熱をかけた先人の想いを知ると共に自分たちのまちを支える さまざまな仕事と自分の興味との繋がりに気づく小学校高学年向けキャリア教育プログラム 「ゆめ・まち わくわくWORKプログラム」について

阪急電鉄　総務部　社会貢献担当　平野 里美

阪急電鉄株式会社は、社会貢献活動「阪急阪神 未来のゆめ・まちプロジェクト」を通じ、未来のまちを担う人材であるこども達が夢を持って健やかに成長する機会を提供するべく、「次世代育成」に取り組んでおります。このプログラムにより、当社創業者である小林一三（こばやしいちぞう）のまちづくりの取組みを知っていただくと共に、まちにはたくさんの仕事があること、仕事への興味・関心を広げる重要性を伝えます。本プログラムが、こども達の将来の夢や希望を広げる一助とな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概要

関連教科：	総合的な学習の時間・道徳	対象　：	小学校 5・6 年生推奨
時数　：	全 2 時限	テーマ　：	キャリア教育、道徳（先人に学ぶ）
授業形式：	出張授業	実施地域：	当社エリア内
実施期間：	5 月～3 月		（大阪府、京都府、兵庫県）

◆特徴

①勤労観・就労観の醸成

まちづくりを事業とする阪急電鉄の取組みを知ると共に、仕事の役割や大切さ、努力や工夫をワークを通して理解しながら、社会にはさまざまな仕事があることに気づかせる。

②さまざまな仕事への関心を喚起させる教材

児童に人気の仕事、身近でない仕事、伝統的な仕事から構成した 100 種以上の仕事を、自分の興味をもとに知ることができるワークブック教材を提供。

③自他理解能力の育成

自分の興味を分析するワークを通して、自己理解を深めると共に、他社の多様な個性を理解し、互いに認め合うことを大切にする自他理解能力も育成。

◆ポイント◆

気づいていなかった自身を知り、将来の夢や可能性を広げ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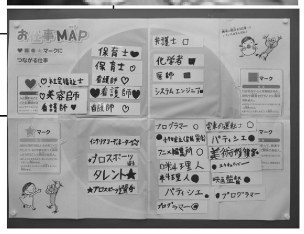
チェックシートを用いて自分の興味を分析し、ワークブックに掲載された 100 種以上の仕事の中から、自分の興味と繋がる仕事を探します。自分を見つめ直すきっかけとなると共に、ひとつの興味がさまざまな仕事に繋がることに気づかせ、児童の将来の夢や可能性を広げます。

◆授業の流れ（45 分×2 時限）

ねらい ●「まち」をつくることに夢をかけた昔の人の努力や工夫を知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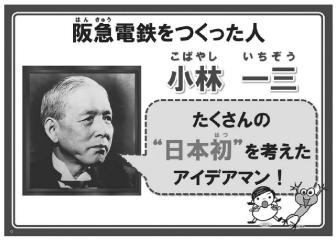
●「まち」にはさまざまな仕事があることを知り、職業観や就労観を育むと共に、自分の興味があることと関連する仕事がたくさんあることを知り、仕事の選択肢を広げる。

事前準備 ※教員実施	**自分が興味のあることはどんなことだろう**※学活時間に実施 自分の興味についてチェックしよう！
導入	・講師自己紹介 ・授業のねらいを伝える
展開①	**小林一三は阪急電鉄のまちづくりに、どんな工夫をしてきたのだろう？** グループワーク 「まち」をつくることに夢をかけた昔の人の努力や工夫を知ろう！
展開②	**「まち」にはどんな仕事があるのだろう？** 個人ワーク ・自分について考えよう ・“興味”と“仕事”のつながりを探ろう グループワーク ・興味をもった仕事について考えよう
まとめ	・まとめ ・質疑応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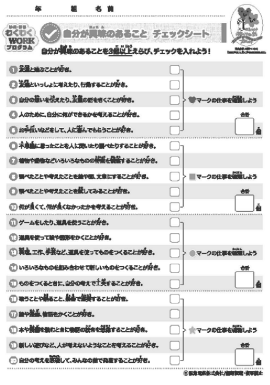


◆教材

①スライド教材



②児童用ワークブック・事前チェックシート



以上

마을의 발전에 열정을 다한 조상 되돌아보기와 자신만의 마을만들기

다양한 일과 자신의 흥미를 연결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꿈 · 마을 두근 두근 워크 프로그램」에 대하여

한큐전철 총무부 사회공헌팀 히라노 사토미(Hirano Satomi)

한큐(阪急)전철주식회사는 사회공헌활동 「한큐한신 미래의 꿈 · 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의 마을을 짊어질 인재인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차세대 육성」을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본사 창업자인 고바야시 이찌조(小林一三)의 마을만들기 노력에 대해서 알리며, 마을에 많은 일이 있다는 점, 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아이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넓힐 수 있도록 기대한다.

◆ 개요

관련교과: 종합적인 학습시간, 도덕	대상: 초등학교 5, 6학년
시수: 2시간	테마: 진로교육, 도덕(조상배우기)
수업양식: 출장수업	실시지역:당사 지역내 (오사카、교토, 효고현)
실시기간: 5월~3월	

◆ 특징

① 근로관, 취로관(勤労観 · 就労観) 양성

한큐전철의 마을만들기 노력을 알리고, 일의 역할과 중요성, 노력과 공부를 일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회사에 다양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림.

②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교재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일,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일, 전통적인 일 등 100종 이상의 일을 자신의 흥미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워크북 교재 제공

③ 자타 이해능력 육성

자신의 흥미를 분석함으로써 자기이해를 깊게 하고, 타사의 다양한 개성을 이해하며, 서로 인정하는 자타이해능력 육성

◆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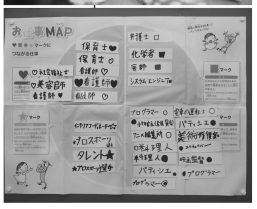
내가 몰랐던 나를 알고,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확장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흥미를 분석, 워크북에 실린 100종 이상의 일 중에서 자신의 흥미에 맞는 일을 찾음.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와 하나의 관심이 다양한 일과 연결된다는 점의 인식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넓힘.

◆수업의 흐름 (45분 x 2시간)

목표 •「마을」만들기의 꿈에 쏟은 선인의 노력과 방법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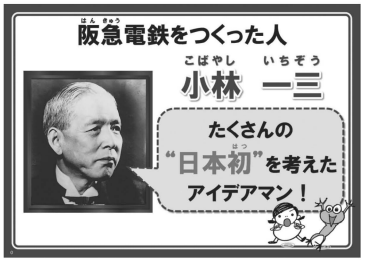
•「마을」에 다양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직업관과 근로관을 육성함과 동시에 자신의 흥미와 관련된 일이 많다는 점 인식 → 일의 선택지 확장

사전준비 ※ 교사가 실시	나의 흥미는 무엇일까? ※학습활동시간에 실시 자신의 흥미 체크하기
도입	· 강사자기소개 · 수업목표 전달
전개 ① (모듬활동)	고바야시 이치조우는 한큐전철의 마을만들기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마을」을 알기 위해 선인들의 노력과 지혜 알기
전개 ② (개인활동) (모듬활동)	「마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 흥미와 일의 연결점 찾기 · 흥미를 가진 일에 대해 생각하기
まとめ	· 종합정리 ·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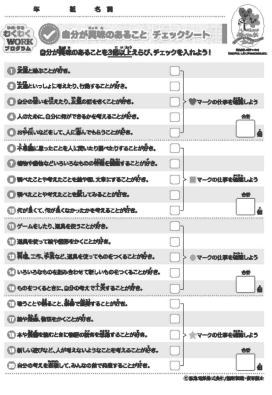


◆교재

①슬라이드 교재



②어린이용 워크북 · 사전 체크리스트



Ishii Akiko(Minato Shirokane Elementary School)

東京都の郊外と都心部のキャリア教育を比較して

石井　暁子(Ishii Akiko, 港区立白金小学校)
早稲田大学大学院　教育学研究科　高度教職実践専攻
東京都教育委員会より１年間派遣（教職経験１２年）

これまでに３つの小学校（多摩市→江東区→港区）に勤務してきた。私は、東京都の郊外でもある多摩市と、都心部である港区では、子どもが自然と受けてきたキャリア教育に差があるように思える。その差を次のようにまとめた。

【東京都の都心部（港区）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　※港区立白金小学校勤務（2015 年 4 月～2017 年 3 月）

・生活水準が高く、保護者も教育に関心が高い。よい学校を出て、よい就職先に就いてほしいと思っているため、小学生のうちから、さまざまな資格をもつ仕事の紹介を親から子へしている。（医者、弁護士、税理士、パイロット、建築士など。）その（資格取得の）ためにどうするのかも、家庭で聞いている子どもが多い。
・将来の仕事についての話もしているが、当然そのためにはまずよい学校を出なければということから、中学受験に必死に取り組んでいる。
・これらのよい点は、早くから将来の仕事ついて子どもに話をして、将来の見通しを立てられるような教育をしていること。また、そのために、まずは幅広く知識をつけようと勉学に励むためにきっかけを作っているのもよい。しかしながら小学生で幅広い知識もない中で、単に仕事の種類と採用率、報酬を知ってしまうと、採用が難しい仕事や報酬の高い仕事に就いている人は偉い人として見る。そうでない人は、見下して見てしまうという部分もある。
→小学生のうちに、さまざまな職業情報を与えるのは良いと思うが、どの仕事も役割があり、素晴らしい仕事であり、それを見下したりはしていけないことも含めて、キャリア教育していくことが大切だと思う。

（※江東区立東川小学校勤務　2009 年 4 月～2015 年 3 月）

【東京都の郊外（多摩市）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　※多摩市立瓜生小学校勤務（2005 年 4 月～2009 年 3 月）

・生活保護を受けている家庭も少なくはなく、親は子どもの将来にそこまで期待していない。親も子どもも小中学生のうちは友達と一緒に仲良く遊ぶことや習い事を楽しめばよい。勉強はそれなりに頑張ればよいという認識に近い。
・男子においては、中学生あるいは高校生までＪリーガー、プロ野球選手を夢見て、日々練習に明け暮れる子どもも多い。プロスポーツ選手の就職倍率を把握していないこと、他の職業に目を向ける機会がなかったことが原因ではないかとも思う。
→仕事の種類・仕事内容・採用率・報酬を知らないまま、進路希望の時期を迎えている。

☆多摩市の頃の教え子（現在２２歳）６名に、
「どんなキャリア教育を受けていたらよかったと思うか。」とインタビューした結果

①２２歳男　小学生の頃はスポーツ万能、学力△　公立中学校を卒業後、野球の強い私立高等学校へ進学し、３年間野球部に所属。高校卒業後には、スポーツ学を学ぼうとし、大学の通信課程に入学するが、途中退学。現在は調理師免許が取得できる専門学校で勉強中。

・高校生までは、本気でプロ野球選手を夢見ていた。なれるかもしれないと思っていて、他の仕事は考えていなかった。小・中・高と野球を全力でやりきれたことに後悔はしていないが、もっと早いうちに他の仕事についての情報も得ていたかった。世の中にあるたくさんの仕事の種類を知ったり、その中でも自分に適した仕事は何かを早く知ることができたりすれば良かった。そして、もっと早めに準備をして動けると良かった。採用率の厳しさに気付くのが、遅かった。

②２２歳男　　小学生の頃学力×　公立の中学校・高等学校を卒業。中学では問題行動が目立つ。高校もなんとか卒業できたとのこと。
高卒で建築現場の仕事に就く。２０歳で子どもができ、現在は１児の父親。

・高校を卒業する頃まで将来については全く考えていなかった。子どもができてから、将来についてようやく真剣に考え始めた。今思うと、社会に出る前に、もっと世の中の仕事の種類や、それぞれの仕事のメリットやデメリットも知っておきたかった。

③２２歳男　　小学生の頃学力○　　中学受験。日本大学附属中学校・高等学校卒業。現在、日本大学４年生。大学院進学希望。

・様々な仕事の種類を知っておきたかった。また、将来の夢を実現するための手立て（それぞれの職業にはどんな資格が必要であるのか、どんな学校やどんな専門分野に進めばよいのか）を聞いたり、聞いた上で、今はどうしたらよいのか考えたりする時間が欲しかった。」

④２２歳女　　小学生の頃学力○　学校よりも習い事のダンス優先。公立の中学校・高等学校を卒業。現在、明治大学４年生。
現在もダンスを続けており、劇団四季入団を目指している。

・小中学生の頃に、特別にキャリア教育を受けていなかったが、それで良かったと思う。採用率や報酬を早いうちから叩きこまれていたら、現実的な仕事だけを考えていたかもしれないから。聞いておきたかったこととすれば、それぞれの仕事の社会貢献度だと思う。どの仕事が、誰のどんな役に立っているのかを聞いておきたかった。また、目指す職業に就くために特別に必要な能力があるならば、どのように磨けば良いのか、何をすればよいのか知りたかった。

⑤２２歳男　　小学生の頃学力○　中学受験。東海大学附属中学校・高等学校卒業。現在、専修大学４年生。教員希望。

・報酬について聞いておきたかった。やはり給料と言うのは大きい。いい暮らしができると分かっていたら、報酬のいい仕事を早くから目指していたと思う。報酬の差を早くから知っていたら、もっと勉強していたと思う。また、幅広い職業を知るとともに、それぞれの職業に就くためには、どんな勉強をすればよいのか、そしてその仕事のメリットやデメリットも聞いておきたかった。

⑥２２歳女　　小学生の頃学力○　公立の中学校・高等学校を卒業。現在、神奈川大学４年生。
現在のバイトは、アパレル関係。就職先も、アパレル業を志望。

・中学生時代に職場体験をしたことがきっかけで、将来の仕事について考えるようになった。
興味のある分野ごとに、どんな職種があるのか紹介してほしかった。また、自分の適性診断をもっと早くに体験しておきたかった。

→早めに仕事の種類・仕事内容（メリット、デメリット）・採用率・報酬・就職に必要な条件・社会貢献度を、知りたかったことが分かる。また、仕事についての情報を得た上で、自分にあった職業を考えたり、今どんなことができるのかを考えたりする時間がほしかったという学生もいる。中には、小中学生のうちに、採用率や報酬など、現実的なことを聞いておかず良かったという意見もあった。

도쿄도의 교외와 도심부의 커리어 교육을 비교하며

이시이 아키코 (Ishii Akiko, 미나토구 시라가네 소학교)
와세다대학 대학원 교육연구과 고도교직실천전공
도쿄도 교육위원에서 1년간 파견 (교직 경험 12년)

지금까지 세 곳 의 초등학교(다마시→고토구→미나토구)에 근무해왔다. 나는 도쿄도의 교외인 다마시와 도심부인 미나토구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온 커리어 교육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도쿄도 도심부 (미나토구)의 커리어 교육】
※미나토구 시로가네 초등학교 근무 (2015년 4월~2017년 3월)

- 생활수준이 높고 보호자도 교육에 관심이 높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다양한 자격을 지닌 일에 대한 소개를 부모가 아이에게 하고 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파일럿, 건축사 등) 그 (자격 취득)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가정에서 듣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
- 장래의 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를 위해서는 우선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중학교 수험에 필사적으로 임한다.
- 이러한 상황의 좋은 점들은 일찍부터 장래의 일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 하여 장래의 전망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를 위해 우선은 폭넓은 지식을 가지게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폭넓은 지식도 없는 가운데 단순히 일의 종류와 채용률, 보수 등을 알게 되면 채용이 어려운 일과 보수가 높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해 버리는 부분도 있다.
  →초등학생일때 다양한 직업 정보를 주는 것은 좋으나 어떠한 일이라도 그 역할이 있고 훌륭한 일이라는 점,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포함하여 커리어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토구립 토센 초등학교 근무 2009년 4월~ 2015년 3월)

【도쿄도 교외 (다마시)의 커리어 교육】
※다마시립 우류 초등학교 근무 (2005년4월 ~ 2009년3월)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가정도 적지 않고 부모는 아이의 미래에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는다. 부모도 아이도 초, 중학생 시절에는 친구와 함께 사이 좋게 놀고 숙제를 잘

하면 된다.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인식에 가깝다.

- 남자의 경우에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까지 j리거, 프로 야구 선수를 꿈꾸며 매일 연습에 몰두하는 아이들도 많다. 프로 스포츠 선수 취직 비율을 파악하지 않고 있고 다른 직업에 눈을 돌릴 기회가 없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의 종류, 일의 내용, 채용률, 보수를 모른 채 진로 희망 기대를 하고 있다.

☆다마시립 당시 제자 (현재 22세) 6명에게 '어떤 커리어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한 결과

①22세 남 초등학교 시절 스포츠 만능, 학력△ 공립 중학교 졸업 후 야구로 강한 고교로 진학하여 3년간 야구부에 소속, 고교 졸업 후에는 스포츠학을 배우기 위해 대학의 통신 과정에 입학하였으나 도중 퇴학, 현재는 조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전문학교에서 공부 중.

- 고교생때까지는 진심으로 프로 야구 선수를 꿈꾸었다.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았다. 초, 중, 고교 야구에 전력투구 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좀더 일찍 다른 일에 대한 정보도 얻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의 종류를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적합한 일은 무엇인지 빨리 알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이다. 좀더 빨리 준비 해서 일 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이다. 취업률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늦게 알아 차렸다.

②22세 남성 초등학교 시절 학력 x 공립 중학교 • 고등학교를 졸업. 중학교에서는 문제 행동이 눈에 띄었다. 고등학교도 어렵게 졸업하였다. 고등학교에서 건축 현장의 일을 하게 되어 20세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현재는 한 아이의 아버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미래에 대해서 겨우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회에 나오기 전에 좀더 이 세상의 일의 종류와 각각의 장 단점에 대해 알고 싶었다.

③22세 남성 초등학교 시절 학력 ○ 중학교 수험, 일본대학 부속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현재 일본대학 4학년, 대학원 진학 희망.

- 다양한 일의 종류를 알고 싶었다. 또한 장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각각의 직업에 어떠한 자격들이 필요한지, 어떤 학교와 어떤 전공 분야로 나가야 하는지 등)을 들어 보거나, 듣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④22세 여성 초등학생 시절 학력 ○ 학교 보다도 무용을 배우는 것을 우선시 함, 공립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 현재 메이지 대학 4학년. 현재도 계속 무용을 하고 있으며 극단 '시키'의 입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초 중학생 시절에는 특별히 커리어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서 좋았다고 생각한다.

취업률이나 보수를 너무 일찍부터 주입시켰다면 현실적인 일 만을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들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각 일의 사회 공헌도 일 것이다. 어떤 일이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들어보고 싶었다. 또한 목표로 하는 일을 갖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갖추면 좋은지, 무엇을 하면 좋은지를 알고 싶었다.

⑤22세 남성 초등학교 시절 학력 ○ 중학교 수험, 도카이 대학 부속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현재 센슈대학 3학년. 교사 희망.

- 보수에 대해 알고 싶었다. 역시 월급이라는 부분이 크다.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보수가 좋은 일을 미리부터 목표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수의 차이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면 좀더 공부를 했을것이라고생각한다. 또한 폭넓은 직업을 알게 됨과 동시에 각각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의 장점과 단점을 들어보고 싶었다.

⑥22세 여성 초등학생 시절 학력 ○ 공립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현재 가나가와현 대학 4학년. 현재 아르바이트는 의류 관련. 취업하고 싶은 곳으로도 의류 계통 지망.

- 중학생 때 직업 체험을 한 것을 계기로 미래의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흥미가 있는 분야별로 어떠한 직종이 있는지 소개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또한 자신의 적성 진단을 좀더 빨리 체험 하고 싶었다.

→일찍부터 일의 종류 일의 내용 (장, 단점), 취업률, 보수, 취직에 필요한 조건, 사회 공헌도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생각하거나 지금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거나 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는 학생도 있었다. 그 중에는 초등학생 시절에 취업률과 보수 등 현실적인 것을 듣지 못해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다.